

碩士學位 請求論文  
指導教授 韓 成 一

# 축산물 유통 시스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중심으로 -

建國大學校 農畜大學院

食品流通經濟學科

황 인 식

# 목 차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모델 개발 .....	
제 2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제 2 장 쇠고기 시장 구조 .....	
제 1 절 국내 쇠고기 시장 현황 .....	
제 2 절 쇠고기 유통현황 .....	
제 3 절 국내 쇠고기 소비와 외식산업 .....	
제 3 장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개요 .....	
제 1 절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의 의의 및 필요성 .....	
제 2 절 선진외국의 운영 실태 .....	
제 3 절 우리나라의 운영 실태 - 시범사업 추진현황 .....	
제 4 장 이력추적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 .....	
제 1 절 조사개요 .....	
제 2 절 브랜드경영체 담당자 의식분석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제 2 절 제도도입 및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안 .....	
제 4 절 한우 산업육성과 축산물 유통구조의 업그레이드 .....	
참고문헌 .....	
Summary .....	
설문지 .....	

## 표 목 차

<표 2-1>	연도별 쇠고기 수급 현황 .....
<표 2-2>	주요국 사육두수 현황 .....
<표 2-3>	년도별 한육우 사육현황 .....
<표 2-4>	'06.9월 기준 규모별 사육현황 .....
<표 2-5>	국내산 쇠고기(생축) 유통 주체별 이동 비중 .....
<표 2-6>	유통경로별 비중 .....
<표 2-7>	가축시장 현황 .....
<표 2-8>	도축장 운영 주체별 도축현황 .....
<표 2-9>	지역별 축산물종합처리장(LPC)운영 현황 .....
<표 2-10>	도매시장 운영 주체별 도축 가동률 현황 .....
<표 2-11>	축산물 도매시장 경유 물량 .....
<표 2-12>	식육판매점 현황 .....
<표 2-13>	식육판매업 유형별 현황 .....
<표 2-14>	대형할인점 설치현황 .....
<표 2-15>	UR협상과 쇠고기 수입량 비교 .....
<표 2-16>	년도별 쇠고기 수입기관 .....
<표 2-17>	쇠고기 수입실적 .....
<표 2-18>	수입 쇠고기 냉장·냉동육 수입량 추이 .....
<표 2-19>	부위별 쇠고기 수입량 .....
<표 2-20>	국가별, 부위별 수입량 .....
<표 2-21>	분기별 축종별 사육두수, 도축두수 비교 .....
<표 2-22>	연도별 한우, 육우, 젖소 도축 비중 .....
<표 2-23>	해외 주요국 육류 1인당 소비량 현황 .....
<표 2-24>	1일 1인당 에너지 공급량 .....
<표 2-25>	가구당 평균 거래지수 .....
<표 2-26>	외식 산업시장 규모 .....
<표 2-27>	단체급식업체의 육류 매출액 추정 .....
<표 2-28>	레스토랑 사용 원료육 현황 .....
<표 2-29>	레스토랑별 매출액 및 육류 구매액 추정 .....
<표 2-30>	패스트푸드별 매출액 및 육류 구매액 추정 .....
<표 2-31>	외식관련 해외브랜드 진출 현황 .....

<표 3-1>	주요 선진국의 제도추진 상황 .....
<표 3-2>	쇠고기 이력추적 체계도 .....
<표 3-3>	시범사업 참여 브랜드, 도축장, 판매장 지정현황 .....
<표 3-4>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 지역 및 지정사업장 현황 .....
<표 3-5>	'06.11월 현재 시범사업 추진현황 .....
<표 4-1>	설문대상자의 직업 .....
<표 4-2>	설문대상자의 연령 .....
<표 4-3>	브랜드사업에 참여한 경력 .....
<표 4-4>	귀표장착 실시주체 .....
<표 4-5>	귀표장착 비용 부담자 .....
<표 4-6>	귀표장착의 책임 소재 .....
<표 4-7>	생산단계 비용 부담자 .....
<표 4-8>	현행2조식 귀표에 대한 견해 .....
<표 4-9>	귀표 관리 방법 .....
<표 4-10>	정확한 기록관리 방안 .....
<표 4-11>	농가 기록, 전산등록 가능 여부 .....
<표 4-12>	이동상황에 대한 농가의 신고 여부 .....
<표 4-13>	이동 및 출하 등 상황관리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
<표 4-14>	이동증명서 도입 여부 .....
<표 4-15>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목적 .....
<표 4-16>	현 운용 시스템에 대한 견해 .....
<표 4-17>	판매장에서 이력정보 제공 방법 .....
<표 4-18>	생산단계 DNA 검사의 필요성 .....
<표 4-19>	DNA 검사 수준 .....
<표 4-20>	가공장, 판매장에서의 DNA 검사 .....
<표 4-21>	RFID를 이용한 개체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 .....
<표 4-22>	이력추적 시스템 시행 만족도 .....
<표 4-23>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후 변화 여부 .....
<표 4-24>	브랜드경영체의 지원 사항 .....
<표 4-25>	정부의 지원 희망 금액 .....
<표 4-26>	농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
<표 4-27>	이력추적 시스템의 전면 도입 .....
<표 4-28>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 .....
<표 5-1>	'06년 기준 한우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신모델 개발

1970년 이후 우리나라 축산물 재래시장에서는 공급자 중심의 냉동육으로 맛있는 고기가 부식위주로 부분적으로 소비됨에 따라 가뜩이나 자급률이 부족한 형편인 식육시장은 비인기부위는 체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해 축산관련 산업은 낮은 이익구조가 불가피 하였다.

이런 낮은 이익구조는 관련 설비투자가 어렵게 되어 낙후·오염된 시설에 의해 비위생적으로 축산물이 처리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80년대 이후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소득향상에 의해 그동안 축산업도 육가공기술의 발달, 대량소비처의 유통비중제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으며 정부에서도 등급판정제도와 HACCP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수출재개 노력, 브랜드 육성, 식육전문판매점 지원, 부분육공급 등 축산물유통 시장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시장으로 발전시켜 왔다.

다가올 21C 우리의 축산물 소비패턴은 브랜드 중심의 안전하고 맛있는 고기가 고급식육소비문화에 의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어 경쟁력 있고 위생·안전한 이력추적이 가능한 식육유통으로 전환되어 식육처리시설도 현대화되며, 도축·운송처리 등 유통단계에도 품질개념이 도입되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유통구조에 의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점포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식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수입확대, 위생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에 따라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기대 수준이 가장 높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축산물 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동 제도를 중심으로 축산물 유통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전세계적으로 광우병을 비롯한 가축관련 질병의 증가로 인해 식품안전을 둘러싼 소비자의 관심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은 HACCP을 비롯한 여러 가지 품질관리방법에 의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생만으로 불충분하며 생산 및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불가피하며, 이력추적시스템은 이런 투명성을 확보하는 수단인 한가지이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광우병(BSE)이 발생한 국가(EU, 일본, 캐나다)나 쇠고기 수출이 많은 나라(호주)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으나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육류의 이동이 국제간 자유롭고 우리나라 유통시장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특히 미국산의 경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아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다른 악성질병의 유입도 배제할 수 없는 여건이다.

또한 현재 질병발생시 일정면적을 정해 무차별 도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소의 개체 식별방법과 관련되거나 DNA검사방법, 소비자들의 인지도, 비용손익분석, 정보연계방안 등 단편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제도는 정부에서도 주요 브랜드경영체를 대상으로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준비하고 있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제안을 위해 과거의 사례, 현행시범사업에 대한 여론동향, 외국의 실태, 사업시행체계와 법제화 방안 등의 연구는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 제 3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국내외 이력추적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 및 각국의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현재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브랜드경영체의 실무자 및 관계 공무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가 의도하는 바를 명확하게 기술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이력추적시스템 적용 대상인 쇠고기의 생산, 유통, 소비 및 수입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 3 장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진행상황 및 문제점을 적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제 2 장 쇠고기 시장 구조

### 제 1 절 국내 쇠고기 시장 현황

국내 쇠고기 총 소비량은 1970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3% 감소한 316.9천톤이었다. 2005년 총 소비량 중 국내산은 15만 2,424톤, 수입산은 16만 429톤으로 이는 전년에 비하여 국내산은 5.2% 증가한 반면 수입산은 12.3%가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비감소는 캐나다(2003. 5)와 미국(2004. 12)의 광우병 발생 여파와 경기침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 총 공급량은 국내 생산(한우, 육우, 젓소 도축)과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1990년 이후 2003년까지 수입 쇠고기의 비중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2-1>.

<표 2-1> 연도별 쇠고기 수급 현황

년 도	수 요		공 급						자급도 (B/A)*100
			(A)	국내(B)	수 입				
	천t								%
70		37.3	37.3	37.3				-	100.0
75		70.3	70.3	70.3				-	100.0
80		100.0	100.0	93.1				6.9	93.1
85		120.4	120.4	115.7				4.7	96.1
90		180.6	180.6	94.8				85.8	52.5
95		301.2	301.2	154.7				146.5	51.4
00		402.4	475.9	214.1				261.8	52.8
01		384.1	416.8	164.4				252.4	42.3
02		402.7	457.7	147.4				310.2	36.6
03	390.2	141.6	248.6	490.2	141.6	348.6	293.7	54.7	36.3
	계	국 내	수 입	계		소계	당년	이월	
04(C)	327.8	144.9	182.9	377.6	144.9	232.7	132.9	99.9	44.2
05(D)	316.9	152.4	160.5	344.9	152.4	192.4	142.6	49.9	48.1
증감률 (D/C)	△3.3	5.2	△12.3	△8.7	5.2	△17.3	7.3	△50.0	3.9

※ 자료 :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농수축산신문 「2005 한국축산연감」

그러나 2005년 쇠고기 총 공급량은 34만 4,869톤으로 2004년도에 비해 8.7% 감소하였다. 총 공급량 중 국내 생산량은 15만 2,424톤이며, 수입산 쇠고기 물량은 2004년도 이월재고량 4만 9,852톤을 포함하여 19만 2,445톤이었다. 국내산 쇠고기 공급량이 5.2% 증가하고 쇠고기 수입량이 2004년도 13만 2,874톤보다 7.3% 증가한 14만 2,593톤으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쇠고기 총 공급량이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전년 수입쇠고기 이월물량이 99,852톤으로 과거의 2배 이상이었으며 웰빙의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 소사육 두수는 '05년 기준 10억두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3억3천두, 브라질 1억7천두, 중국 1억4천두 순으로 사육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젓소 포함 250만두 수준을 사육하고 있다<표 2-2>.

<표 2-2> 주요국 사육두수 현황(USDA, : '05년 잠정)  
(백만두)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미국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소	2.5	4.4	137.8	330.3	95.4	169.6	27.6	21.1

합계	호주	뉴질랜드	Eu	필리핀	캐나다	아르헨티나	기타
1,036	27.3	9.4	86.4	5.6	15.1	50.2	53.3

※ 자료 :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6 식육편람

국내 한육우 사육 규모는 '90년대초 전국에서 60만 농가에서 160~170만두 수준 사육되었으나 '92년 200만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후 '96년 513천호 농가에서 284만두로 최고를 보였다가 UR협상 이후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을 우려하여 사육두수와 사육농가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사육농가의 경우 '90년 62만농가에서 '05년 19만 농가로 3배이상 급격히 감소되어 사육두수와 비교할 경우 규모화가 이루어져 농가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01년 140만두 수준으로 감소한 사육두수는 최근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06.9월 현재 200만두를 넘어서고 있다<표 2-3>.

<표 2-3> 년도별 한육우 사육현황

(천두, 천호)

	'90	'91	'92	'94	'96	'97	'99
두수	1,622	1,773	2,019	2,393	2,844	2,735	1,952
호수	620	601	585	540	513	464	350

	'01	'02	'03	'04	'05	'06.9월
두수	1,406	1,410	1,480	1,666	1,819	2,021
호수	235	212	188	189	192	192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 가축통계

이렇듯 외형상으로는 규모화가 진전된 것으로 보이나 농가별 사육규모를 보면 10두 미만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호수가 75.1%를, 10~19두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12.6%를 차지하고 있고 20두 이상 규모화 된 농가는 전체 사육농가의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규모 사육농가의 규모화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표 2-4>.

<표 2-4> '06.9월 기준 규모별 사육현황

(두, 호)

	합계	1~9	10~19	20~29	30~49	50~99	100~399	400~499	500~이상
두수	2,021,318	507,013	332,724	213,445	281,524	332,673	250,994	46,700	56,245
호수	190,805	143,376	23,959	8,944	7,497	5,095	1,749	126	59

※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6.9.1현재 가축통계

## 제 2 절 쇠고기 유통현황

### 1. 국내산 쇠고기 유통경로 및 유통시설

#### 1) 쇠고기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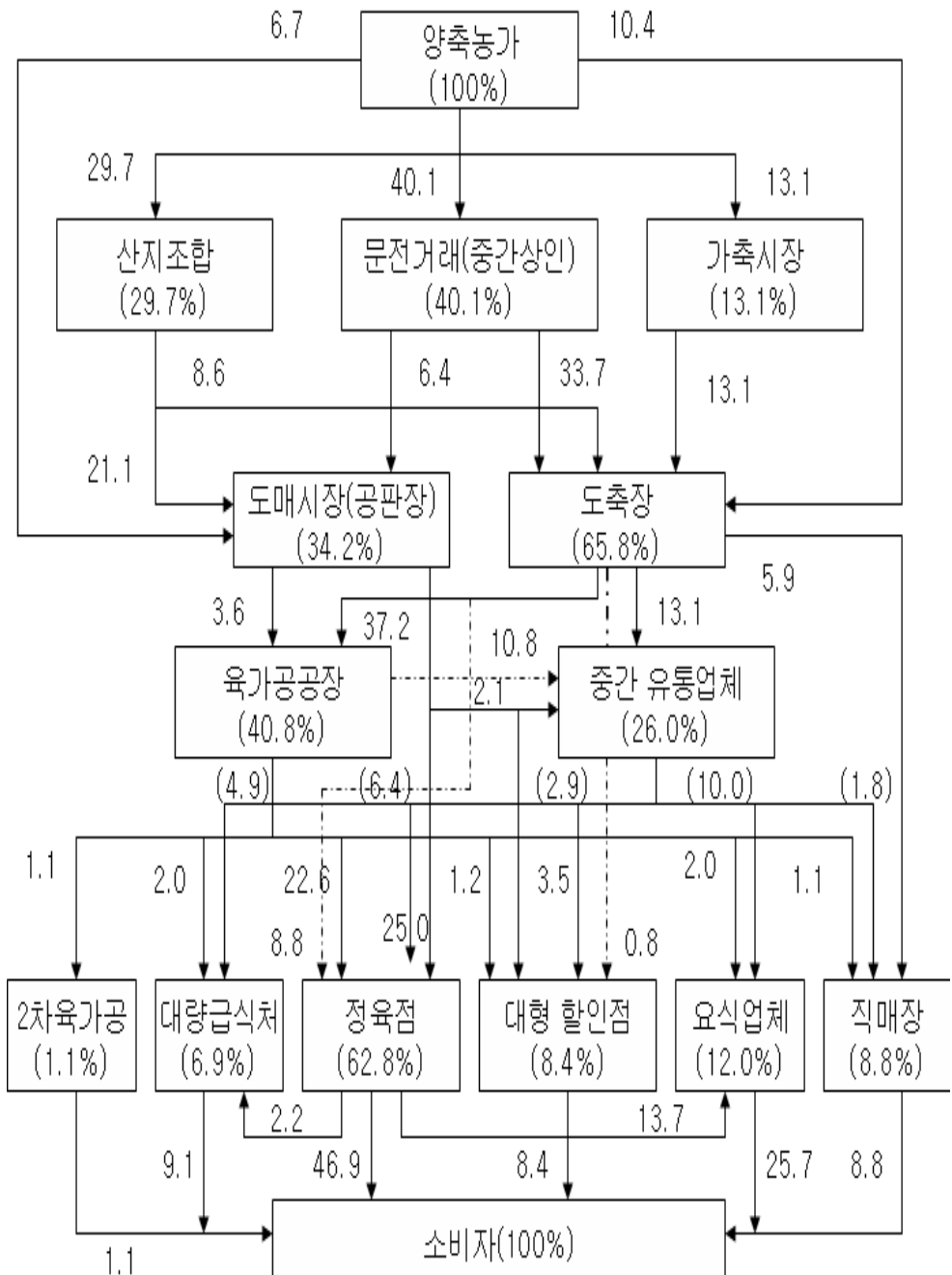
국내 쇠고기(한우) 주요 유통경로는

첫째로, 양축농가→문전거래(중간상인)→도축장

둘째로, 양축농가→산지조합→도매시장(공판장)

셋째로, 양축농가→가축시장→도축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표 2-5>.

<표 2-5> 국내산 쇠고기(생축) 유통 주체별 이동 비중



※ 자료 : 가축유통실태조사 및 개선방안(2006, 육류 수출입협회)

2) 유통경로별 물량

유통단계별, 담당 기관별 물량과 비율의 경우 생체에서는 중간상인, 지육단계에는 도축장, 부위별 소비단계에서는 정육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표 2-6> 유통경로별 비중

구 분		비율(%)	두수(두)	비 고	
양축농가		100	612,431		
생체	가축시장 전문거래 산지조합	13.1	80,081	중간상인 계통출하	
		40.1	245,584		
		29.7	181,892		
	도축장	육가공업체	4.5	27,559	계약생산 직영 직매장
자가경매 직 판 장		6.7	41,033		
5.9		36,133			
소 계		17.1	104,725		
지육	도 매 장	육가공업체	3.6	21,977	
		정 육 점	25.0	153,211	
		대형할인점	3.5	21,558	
		중간유통업 체	2.1	12,555	
	소 계		34.2	209,305	
	도축장	육가공업체	37.2	227,824	
		정 육 점	8.8	53,894	
		대형할인점	0.8	4,899	
직 매 장		5.9	36,281		
중간유통업 체	13.1	80,228			
소 계		65.8	403,126		
정육 (부분육)	정 육 점	46.9	287,230		
		25.7	157,395		
		9.1	55,731		
		8.4	51,444		
		8.8	53,894		
		1.1	6,737		

※ 주 : ① 2005년 물량 기준  
 ② 한육우 및 젓소(암)를 통합하여 산출함  
 ※ 자료 : 가축유통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6, 육류수출입협회

### 3) 유통시설

#### (1) 가축시장

가축시장은 생산자가 사육한 가축을 5일에 한번씩 생산자, 상인들이 일시에 모여서 매매 및 교환 등의 거래를 하는 지정된 장소로 가축의 산지가격을 형성함과 동시에 가격 이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면서 산지 생축 유통의 거점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 및 통신망의 발달, 경제여건의 변화로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가축시장의 통폐합, 이전, 시설개선 등의 이유로 기능이 취약한 소규모 가축시장이 점차 정리되면서 1980년 463개소에서 2004년 106개소로 77.1%나 감소하였다

1995년 7월 가축시장 의무거래제도가 폐지된 이후 출장두수 및 거래율이 낮아지고 있어 가축시장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2-7>

<표 2-7> 가축시장 현황

(단위 : 개)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4
부산	2	-	-	-	-	-	-
경기	40	30	26	13	10	8	8
강원	38	24	24	15	10	8	7
충북	41	31	25	10	8	7	7
충남	47	27	26	16	14	12	12
전북	34	24	29	16	13	12	12
전남	52	37	31	19	18	17	17
경북	109	81	61	39	31	23	23
경남	86	67	61	31	23	18	18
제주	14	4	3	1	1	1	2
계	463	325	286	160	128	108	106

※ 자료 : 농협중앙회 한우낙농부

## (2) 도축장 및 축산물 종합처리장(LPC)

도축장은 1980년 179개소에서 2005년 110개소로 크게 감소하였다. 2005년 도축장시설의 평균 가동률은 소 22%, 돼지 49%로 매우 낮았다. 운영주체별 가동률은 일반도축장이 소 14%, 돼지 40%, 공판장 및 도매시장이 소 40%, 돼지 60% 이다.

도축장 수의 급격한 감소는 도로와 수송수단의 발달로 소규모로 난립되었던 영세 도축장들의 가동률 저하와 경영악화, HACCP 도입 등 위생적인 도축을 위한 시설기준의 강화, 환경 및 수질오염에 대한 국민의식 수준 제고와 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요건 강화, 도축장 인근주민들의 민원증가 등에 기인한다<표 2-8>.

<표 2-8> 도축장 운영 주체별 도축현황(2005년)

운영주체	개소	도축능력(두/일)		도축실적(두/일)		도축가동률(%)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LPC	9	740	12,650	256	9,419	35	75
공판장· 도매시장	14	2,571	22,424	1,026	13,367	40	60
일반도축장	87	6,746	64,491	935	25,994	14	40
계	110	10,057	99,565	2,217	48,780	22	49

※ 주 : 작업일수는 278일 기준임('05.7.1부터 주5일 근무적용)

※ 자료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도축장은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고 위생환경이 열악하며, 이용도축의 도축수수료 수입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가되는 서비스 수준이 낮아 부가가치가 매우 낮다. 그러나 도축세가 지방세로 납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영세 도축장의 폐쇄 및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

축산물의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일괄 처리하고, 지육과 냉동육 중심의 유통체계를 부분·냉장육 및 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하고자 1994년부터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건설되었다.

2005년 12월 9개의 축산물종합처리장(LPC)이 가동 중에 있다. LPC의 1일 도축능력은 소 740두, 돼지 12,650두이다. LPC 1일 평균 도축가동률은 소 35%, 돼지 75%이다. 도축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2005년 12월 LPC가 전체 유통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 7%, 돼지 13%이며, 도축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소 12%, 돼지 19%이다<표 2-9>.

<표 2-9> 지역별 축산물종합처리장(LPC)운영 현황, 2005

명 칭	도축능력(도/일)		도축실적(두/일)		도축가동률(%)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안성 LPC	110	2,200	26	1,490	24	68
원주 LPC	50	750	50	1,240	100	165
청원 LPC	160	2,000	60	1,468	38	73
제천 LPC	50	750	23	750	46	100
홍성 LPC	100	1,500	44	1,013	44	68
김제 LPC	-	2,000	-	1,078	-	54
익산 LPC	120	1,200	10	1,283	8	107
군위 LPC	100	1,500	25	889	25	59
포항 LPC	50	750	18	208	36	28
계	740	12,650	256	9,419	35	75

※ 주 : 익산 및 포항은 각각 '98년, '00년 부도이후 제3차 운영.  
 ※ 자료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현재 운영 중인 LPC는 HACCP 지정, 냉장 브랜드육 유통을 위해 투자된 비용이 큰 반면 도축가동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LPC의 도축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되었고, 영세한 도축장이 물량확보를 위해 도축 수수료를 할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료구입과 상품판매의 시차에 따른 운영자금의 부담도 LPC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원료구입에 대한 농가와의 대금결재는 2일 이내, 판매처와의 결재는 내수판매일 경우 1개월, 수출일 경우 7일이 소요된다.

### (3) 도매시장

2005년말 14개소의 축산물 공판장 및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운영 중이며, 이 중 7개소는 농협이 운영하는 축산물 공판장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개소, 충청권 1개소, 영남권 5개소, 호남권 2개소, 제주 1개소이다. 도축가동률은 소 40%, 돼지 60%이며, 운영 주체별로는 농협공판장이 소 51%, 돼지 70%이며, 민간도매시장이 각각 27%, 46%이다. 농협공판장에 비해 민간도매시장은 도축가동률이 낮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 2-10>.

<표 2-10> 도매시장 운영 주체별 도축 가동률 현황, 2005

	시장수 (개소)	도축능력(두/일)		도축실적(두/일)		도축가동률(%)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도매시장전체	14	2,571	22,424	1,026	13,367	40	60
농협공판장	7	1,361	12,424	698	8,718	51	70
민간도매시장	7	1,210	10,000	328	4,649	27	46

※ 자료 : 농림부, 축산물작업장 현황, 2005. 12.

소의 도매시장 경유 비중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를 벗어나 증가하고 있으나 돼지는 '00년 구제역 이후 일시 증가 이후 계속 감소되고 있다. 2005년 축산물 도매시장 경유비중은 소가 34.2%, 돼지가 16.9%이다.

소의 경우 농가에서 품질고급화를 위해 노력한 공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브랜드로 출하하거나 상장을 해야 제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으로의 출하비중이 높아졌으며, 돼지의 경우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육가공업체에 직접 출하될 물량이 도매시장으로 유입되었으나 품질차이가 적고 등급간 가격 차이도 얼마 되지 않으며 60% 정도가 육가공업체가 임도축을 하여 부분육 등으로 가공 처리되고 있어 처리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향후 도매시장은 「소」 중심으로 운용될 전망으로 보인다.

도매시장은 대부분 도축 기능에 비해 판매 기능이 취약하고 중도매인에의 의존도가 높으며 기능이 도축과 상장매매에 국한되어 있어 단위당 부가가치 생산성이 매우 낮다. 부분육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도시 도매시장의 부분육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부분육 상장 경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거래 상품의 다양화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표 2-11>.

<표 2-11> 축산물 도매시장 경유 물량, 2002~2005

년도	도축두수(A)		도매시장 경락두수(B)		경유율(B/A)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02	633,024	15,338,432	189,373	3,240,003	29.9	21.1
'03	584,251	15,286,616	186,354	3,061,713	31.9	20.0
'04	576,574	14,620,246	209,298	2,803,424	36.3	19.2
'05	612,472	13,464,995	209,305	2,272,870	34.2	16.9

※ 자료 : 농림부 및 축산물등급판정소.

(4) 소매점

식육소매점은 1981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1980년 16,296개소에서 2000년 48,315개로 증가하였으나 2004년말 44,012개소이며 이중 서울, 부산 등 광역시에 425%(18,720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도별로는 경기도가 17.1%(7,509개소) 경북 7.6%(3,361개소), 전남이 6.1%(2,679개소)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표 2-12>.

<표 2-12> 식육판매점 현황

(단위 : 개소)

지역	매장수	지역	매장수
서울	7,456	경기	7,519
부산	3,155	강원	1,936
대구	2,327	충북	1,736
인천	1,862	충남	1,913
광주	1,700	전북	2,248
대전	1,185	전남	2,679
울산	1,032	경북	3,361
-	-	경남	3,209
-	-	제주	694
소계	18,717(42.5%)	소계	25,295(57.5%)
합계(44,012)			

※ 자료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 작업장 및 축산물 가공품 생산실적현황”(2004년말 기준)

식육소매점의 업태별 비중은 2000년 매장 수를 기준으로 일반식육점이 65.3%로 가장 높고 음식점(10.8%), 수입육 전문판매점(9.0%), 슈퍼마켓(8.1%), 농·축협판매점(2.3%), 백화점·할인점·편의점(1.8%) 순이다.

2000년 9월 WTO가 수입쇠고기만을 취급하는 수입육 전문 판매점(백화점·할인점 등 대형매장의 수입육 코너 포함)을 수입 쇠고기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규정함에 따라 2001년부터 쇠고기 구분판매제는 폐지되었다. 그 후 모든 소매점은 국산 및 수입 쇠고기를 동시에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식육소매점의 매장규모는 전체 중 5평 미만이 35.5%, 10평 미만이 83.3%로 매우 영세하다(허 덕 외, 2000. 12).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이윤(생계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가격이 하락해도 판매가격에 연동시키는 폭이 미미하고 상당한 시차도 발생한다.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의 낮은 연동성은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이다<표 2-13>.

<표 2-13> 식육판매업 유형별 현황(2000. 12.) (단위 : 개, %)

	전체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편의점	농협 판매점
전국	48,315	195	3,937	538	157	74
	(100.0)	(0.4)	(8.1)	(1.1)	(0.3)	(0.2)

	지역농축협판매점	수입전문판매점	음식점	일반 식육점	기타
전국	1,011	4,363	5,225	31,551	310
	(2.1)	(9.0)	(10.8)	(65.3)	(0.6)

※ 자료 : 농림부

독신가구 증가, 핵가족화 진전 등 가구형태의 변화와 함께 외식증대, 간편식 위주의 식생활 패턴 변화에 따라 대형할인점의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대형마트 설치 현황을 보면 '04년말 현재 212개소로서 이마트(79개소), 롯데마트(43개소), 홈플러스(42개소) 등이다<표 2-14>.

<표 2-14> 대형할인점 설치현황

구 분	국내 점포수(개소)	매출액(전체) (억원)
이마트	79	81,000
홈플러스	42	46,000
롯데마트	43	33,000
까 르 프	32	20,000
월 마 트	16	8,000
계	212	188,000

※ 자료 : 중앙일보, 2006.3.4(토) 12면

이들 대형마트를이용한 육류 구매율을 서울거주 30~40대 주부 665명에 대해 '06.5월 설문조사한 결과 53.5%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도시의 대형마트는 육류 유통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계 : 665	빈 도	%
이마트 등 대형매장	356	53.5
동네슈퍼	94	14.1
식품소매점	211	31.7
식당 또는 시골산지	4	0.6

※ KREI 농업관측센터 설문조사

4) 쇠고기 수입 및 유통실태

(1) 쇠고기 수입 배경과 경과

UR협상이전에는 국내 쇠고기 수입은 국내 쇠고기 수급조절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66년 국내 최초 쇠고기 수입(29톤)된 이후 1977년 6,366톤 등 5천톤 이상 본격적으로 수입되다가 1984년 10월부터 1988년 5월말까지 국내 소 값 폭락에 따라 쇠고기 수입이 전면 중단되었다. 1988년 육류수출국(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들이 GATT에 한국의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제소(1988년 9월)하는 등의 진통을 겪고 난 이후 1991년 128,960톤의 실적을 보이는 등 년 평균 10만톤 이상을 수입하게 되었다.

1993.12.15일 UR협상 타결이후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전까지의 쇠고기 수입량은 '93년 수입쿼터량 99,000톤(실적 99,031톤)을 기준으로 매년 SBS물량은 10% 수준 증가하였다<표 2-15>.

<표 2-15> UR협상과 쇠고기 수입량 비교

(단위 : 톤)

구분	연도	수입쿼터량			실제수입량	비고		
		수급용	SBS용	계				
UR협상 타결이전	'90'	62,060	4,060	58,000	84,000	쿼터량대비	46%초과	수입
	'91'	57,660	4,340	62,000	125,000	쿼터량대비	202%초과	수입
	'92'	61,380	4,620	66,000	132,000	쿼터량대비	200%초과	수입
UR협상 타결이후						관세	부과금상환	SBS비율
	'93'	89,100	9,900	99,000	99,031	200	100	10
	'94'	84,800	21,200	106,000	116,899	200	95	20
	'95'	86,100	36,900	123,000	148,095	436	70	30
	'96'	88,200	58,800	147,000	147,236	432	60	40
	'97'	83,500	83,500	167,000	168,293	428	40	50
	'98'	74,800	112,200	187,000	76,967	424	20	60
	'99'	61,800	144,200	206,000	162,598	420	10	70
	'00'	67,500	157,500	225,000	222,768	416	0	70
'01'	수입 자유화 이후, 관세 412%							

※ 자료 : 가축유통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6, 육류수출입협회

쇠고기 수입체계를 살펴보면 '88년 이전에는 국내 쇠고기 수급 조절용으로 농림수산부의 추천 하에서 축협중앙회에서 수입 실무를 추진하였으나 '88년 한·미간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에서 생산자 단체가 아닌 별도의 독립수입 창구를 설치하기로 합의(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축산물유통사업단(LPMO)이 설치되었으며, '89년까지는 정부가 정한 할당량을 국내 수급사정을 감안하여 수입과 방출 계획을 담당해왔다.

'88~'93년에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주관이 되어 추천과 수입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일반 유통업체에 판매해 왔으며 '93~'00년 기간 중에는 수급조절용은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수입하고 나머지는 축협, 한냉 등이 SBS물량 등으로 직접 구매해 왔다.

'01년 이후 수입 자유화로 인하여 관세 412%를 부담하면 민간업체도 자유롭게 수입하는 등 완전개방 되었다<표 2-16>.

<표 2-16> 년도별 쇠고기 수입기관

구 분	수급조절용		관광호텔용		SBS용	
	추천기관	수입기관	추천기관	수입기관	추천기관	수입기관
'78년 이전	농림수산부	조달청	농림수산부	조달청	-	-
'78.4	"	축산진흥회	"	호텔자체	-	-
'78.7	"	"	교통부	호텔용품센터	-	-
'81.1	"	축협중앙회	"	"	-	-
'86.7	축협중앙회	"	"	"	-	-
'88.8	LPMO	LPMO	LPMO	LPMO	-	-
'90.6	"	"	"	"	LPMO	LPMO
'98.8월이후	"	"	"	"	"	Super Group

※ 주 : SBS(Simultaneous Buy and Tender System : 매매동시입찰제도)

※ 자료 : 축산물유통사업단(LPMO)



(2) 쇠고기 수입 추이

2001년도 쇠고기 수입 자유화 이후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여 2000년 237,841톤에서 2003년 293,606톤으로 23.4% 증가하였다. 2003년도 국가별 점유비율은 미국 67.9%, 호주21.8% 뉴질랜드 8.6%, 캐나다 1.6% 순으로 나타나며 2004년 미국산 및 캐나다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인해 전체 수입량도 2003년에 대비하여 2005년도에는 51.4%로 감소하였으며, 2005년도기준 국가별 수입량은 호주 71.1%, 뉴질랜드 27.3%, 멕시코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산 수입량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2-17>.

<표 2-17> 쇠고기 수입실적

(단위 : 톤, 정육기준)

구 분	미 국	호 주	캐나다	뉴질랜드	기 타	계
'00	131,505	70,271	18,615	11,170	6,280	237,841
'01	95,671	54,410	5,665	10,171	356	166,273
'02	186,630	76,758	11,595	17,248	15	292,246
'03	199,409	64,127	4,756	25,314	-	293,606
'04	-	86,012	-	46,197	660	132,869
'05	-	101,365	-	39,002	2,225	142,593
증감(%) (‘05/‘04)	-	17.8	-	△15.6	237.1	7.3

※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기준

냉장육과 냉동육 쇠고기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냉장육 쇠고기 수입 비율은 10% 이하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그 비중은 증가 추세이며, 냉장육 수출이 가능한 국가로는 미국과 캐나다에

한정되었으나 '04년 이들 국가의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냉장육 수입량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웰빙 확산으로 인해 신선, 고급육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냉장육 수입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냉동육 물량도 육가공기술의 향상으로 냉장육으로 둔갑판매 될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2-18>.

<표 2-18> 수입 쇠고기 냉장·냉동육 수입량 추이

(단위 : 톤, 정육기준)

구 분	'02	'03	'04	'05
냉 동	278,323(95)	270,830(92)	120,755(91)	123,087(86)
냉 장	13,923(5)	22,776(8)	12,114(9)	19,506(14)
합 계	292,246	293,606	132,869	142,593

※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기준

※ 주 : ( )는 비율임

연도별, 부위별 수입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이전 부위별 수입량은 갈비, 목심, 양지 순이었으나, 수입중단 이후에는 갈비, 목심 및 전지 순으로 일부 부위의 변화가 있었다. 특히 갈비의 경우 '02년도 49.7%이었던 수입 비율이 '05년도에는 28.5%로 상당부분 감소현상을 나타냈다. 이는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곡물보다는 목초 급여로 인해 국내에서 구이용으로는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표 2-19, 2-20>.

<표 2-19> 부위별 쇠고기 수입량

(단위 : 톤)

구 분	'02	'03	'04	'05	증감(%) ( '05/'04)
갈 비	145,185(49.7)	160,699	29,571	40,699(28.5)	37.6
등 심	15,834( 5.4)	6,369	3,162	2,658( 1.9)	△ 15.9
목 심	54,084(18.5)	58,338	26,654	28,561(20.0)	7.2
사 태	11,306( 3.9)	9,550	6,925	8,108( 5.7)	△ 14.6
설 도	4,164( 1.4)	2,230	6,191	4,294( 3.0)	△ 30.6
안 심	2,464( 0.8)	2,372	2,387	2,237( 1.6)	△ 6.3
전 지	14,041( 4.8)	14,782	21,998	14,242(10.0)	△ 35.3
양 지	20,876( 7.1)	20,055	12,666	11,272( 7.9)	△ 11.0
우 둔	9,223( 3.2)	6,933	9,572	6,122( 4.3)	△ 36.0
채 끝	1,460( 0.5)	2,027	921	690( 0.5)	△ 25.1
기 타	13,609( 4.7)	10,250	12,822	23,709(16.6)	84.9
계	292,246(100)	293,605	132,869	142,593(100)	7.3

※ 자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기준

<표 2-20> 국가별, 부위별 수입량('05년도 기준)

(단위 : 톤)

구 분	호 주	뉴질랜드	기타(멕시코)	계
갈 비	24,798	15,004	898	40,700(28.5)
등 심	2,066	563	29	2,658( 1.9)
목 심	23,165	4,824	572	28,561(20.0)
사 태	6,901	1,139	67	8,108( 5.7)
설 도	2,524	1,770	-	4,294( 3.0)
안 심	1,768	1,707	119	2,237( 1.6)
전 지	8,895	5,251	96	14,242(10.0)
양 지	7,676	3,517	79	11,272( 7.9)
우 둔	4,097	2,025	-	6,122( 4.3)
채 끝	424	239	28	690( 0.5)
기 타	19,052	4,317	340	23,709(16.6)
계	101,365	39,000	2,225	142,593(100)

※ 자료 : 한국육류수출입협회

### 제 3 절 국내 쇠고기 소비와 외식산업

#### 1. 쇠고기 소비량 변화

쇠고기의 소비량은 국내산, 외국산을 막론하고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다만, 국내산의 경우 소가 도축되면 지육, 정육 형태로 가공되어 전량이 1~2주일 내에 소비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축 물량을 기준으로 도체중량을 곱하여 생산물량을 계산하고, 생산물량이 곧 소비 물량이 된다. 냉장육과 냉동육의 가격과 품질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축된 물량 중 냉장 상태에서 소진되지 못하고 냉동으로 이월되는 물량은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축물량을 소비 물량으로 간주하여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도축된 물량을 기준으로 국내산 소비량을 추정할 때, BSE로 인한 2004년 초의 쇠고기 소비 위축은 예상보다 컸다. 소비자들은 쇠고기 소비를 기피하였고, 이와 같은 소비 감소에 영향을 받아 한우 도축 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4년 초의 한우 도축두수는 2003년 1/4분기 104,956두에서 40,474두 감소한 64,482두였고, 도축율도 9.02%에서 4.90%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점진적인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05. 1/4분기에는 평년수준으로 회복되었다.<표 2-21>.

<표 2-21> 분기별 축종별 사육두수, 도축두수 비교

	사육두수(천두,A)			도축두수(두,B)			도축율(B/A.%)		
	한우	육우	젖소	한우	육우(수입소 포함)	젖소	한우	육우	젖소
'03. 3	1,163	174	552	104,956	33,055	23,189	9.02	19.00	4.20
6	1,236	187	541	80,758	29,077	21,016	6.53	15.55	3.88
9	1,267	197	526	93,538	35,810	24,099	7.38	18.18	4.58
12	1,277	203	519	82,683	33,758	22,314	6.47	16.63	4.30
합계	-	-	-	361,935	131,700	90,618	-	-	-
'04. 3	1,315	206	517	64,482	24,066	20,049	4.90	11.68	3.88
6	1,425	202	509	74,174	43,127	25,007	5.21	21.35	4.91
9	1,469	198	503	97,960	52,373	25,067	6.67	26.45	4.98
12	1,473	193	497	87,826	41,538	20,905	5.96	21.52	4.21
합계	-	-	-	324,442	161,104	91,028	-	-	-
'05. 3	1,480	174	497	104,666	42,637	21,814	7.07	24.50	4.39
6	1,578	179	491	83,226	28,728	17,070	5.27	16.05	3.48
9	1,639	186	485	105,382	34,256	21,871	6.43	15.42	4.51
12	1,633	186	479	98,028	32,940	21,854	6.00	17.71	4.56
합계	-	-	-	391,302	138,561	82,609	-	-	-

※ 주 : 한우와 육우의 사육두수 구분은 2002. 12월부터 가능.

※ 자료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가축통계」, 농림부 발표자료 - 사육두수 - 도축두수

한편, 한육우 및 젖소의 도축 두수 비중을 분석해 보면 1990년 이후 한우의 도축비중은 점점 증가하여 2000년에는 81.91%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한우의 도축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여 2004년 국내 쇠고기에 대한 한우의 도축비중은 56.27%까지 떨어진 반면 육우는 20%이상까지 상승하였다. 이는 그동안 한우 사육기반이 약화된 측면도 있고, 아울러 2005년 수입쇠고기 공급이 줄면서 수입육에 대한 대체육으로 육우 소비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BSE 발생 이후 2004년에는 전년보다 1.3kg이 감소한 6.8kg 이었으며 '05년에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22>.

<표 2-22> 연도별 한우, 육우, 젖소 도축 비중  
(단위 : 두. %, kg)

년 도	한 우	육 우	젖 소	합 계	1인당 쇠고기 소비량
1995	579,773 (74.35)	116,215 (14.90%)	83,799 (10.75%)	779,787	6.7
1996	639,948 (75.31)	115,252 (13.56%)	94,508 (11.12%)	849,708	7.1
1997	887,399 (78.85)	145,870 (12.96%)	92,146 (8.19%)	1,125,415	7.9
1998	1,023,150 (79.79)	137,570 (10.73%)	121,570 (9.48%)	1,282,290	7.4
1999	911,507 (83.25)	100,435 (9.17%)	82,983 (7.58%)	1,094,925	8.4
2000	816,895 (81.91)	103,884 (10.42%)	76,552 (7.68%)	997,331	8.5
2001	550,499 (75.49)	104,242 (14.29%)	74,504 (10.22%)	729,245	8.1
2002	448,594 (70.87)	91,347 (14.43%)	93,083 (14.70%)	633,024	8.5
2003	361,935 (61.95)	131,698 (22.54%)	90,618 (15.51%)	584,251	8.1
2004	324,442 (56.27)	161,104 (27.94%)	91,028 (15.79%)	576,574	6.8
2005	391,302 (63.89)	138,561 (22.62%)	82,609 (13.49%)	612,472 -	6.6

※ 주 : 수입 소는 육우에 포함('03~'05)

※ 자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지표, 2006」

한편 주요 외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소비량은 미국·유럽들과 비교할 때 크게 낮으나 동양권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2-23>.

<표 2-23> 해외 주요국 육류 1인당 소비량 현황(USDA, '05년 잠정치)  
(단위 : kg)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멕시코	캐나다	루마니아	러시아
소	6.7	9.3	5.4	4.7	42.5	22.6	32.6	10.0	15.4
돼지고기	17.8	19.6	37.5	3.6	29.1	15.1	30.3	29.4	17.0
닭고기	7.6	14.7	7.7	8.1	45.1	26.9	30.5	16.4	13.6

※ 자료 :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2006 식육편람

육류소비량과 관련하여 1일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을 보면 70년대에는 전체 에너지 섭취량 중 2.1%, 80년대에는 3.7% 수준을 육류를 통해 섭취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7% 수준을 육류소비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곡류 섭취를 통한 에너지 공급은 7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다<표 2-24>.

<표 2-24> 1일 1인당 에너지 공급량  
(단위 : kcal)

	'70	'80	'90'	'00	'02	'03	'04
합계	2,370	2,485	2,853	3,010	2,991	2,984	2,990
육류	49	91	143	207	211	211	202
(%)	(2.1)	(3.7)	(5.0)	(6.9)	(7.1)	(7.1)	(6.8)
곡류	1,818	1,730	1,697	1,665	1,551	1,500	1,528
(%)	(76.7)	(69.6)	(59.5)	(55.3)	(51.9)	(50.3)	(51.1)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식품수급표

## 2. 외식산업 현황

### 1) 국내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전국기준 '05년 육류 소비금액은 41,596원(월평균 3,466원) 지출되었고, 이 중 쇠고기는 16,964원(1,413원/월), 돼지고기 14,889원(1,240원/월), 닭고기는 2,684원(224원/월) 각각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5>.

<표 2-25> 가구당 평균 거래지수('03~'05)

(단위: 원)

구 분		'03	'04	'05	증감(%) ( '05/'04)
소비 지출		1,862,338	1,963,316	2,035,256	3.7
식 료 품		495,204	532,452	539,260	1.3
육 류	(소 계)	(39,818)	(39,200)	(41,596)	(6.1)
	생 육	-	-	35,110	-
	쇠고기	-	-	16,964	-
	돼지고기	-	-	14,889	-
	닭고기	-	-	2,684	-
	기타 생육	-	-	574	-
	육류가공품	6,123	7,299	6,486	△11.1
	소시지	-	-	770	-
	햄 및 베이컨	-	-	1,659	-
	기타육류가공품	-	-	4,057	-
외 식	(소 계)	(223,012)	(244,359)	(246,876)	(1.0)
	식 사 대	182,160	195,384	180,758	△7.5
	학교급식대	-	-	17,951	-
	음 주 대	40,852	48,975	48,098	△1.8
	기타 외식	-	-	68	-

※ 자료 : 통계청/ KOSIS.NSO.GO.Kr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2) 국내 외식산업의 시장규모

우리나라 외식산업은 '70년대 태동해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기로 급성장하였다. '80년대에는 해외 브랜드업체 및 중소기업의 패스트푸드 업체가 도입 성장하였으며, '90년대에는 기업형 패밀리 레스토랑과 단체 급식이 크게 성장하였다.

국내 외식산업 시장 규모는 2000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90년대 약 18조에서 2003년 40조로서 2배 이상 성장하였으며, 사업체수도 '90년 298천개소에서 '03년 606천개소로 2배 성장 하였음<표 2-26>.

<표 2-26> 외식 산업시장 규모

구 분	매출액(백만원) ('00년 불변가격)	사업체수 (개소)	종사자수 (명)	업체당 종사자수(명)
'82	7,431,793	207,080	521,508	2.5
'86	10,603,201	259,451	708,905	2.7
'90	18,329,125	298,196	871,636	2.9
'96	31,394,502	520,927	1,254,367	2.4
'00	35,472,249	570,576	1,430,476	2.5
'01	33,087,530	505,241	1,341,528	2.7
'02	38,019,756	596,791	1,586,409	2.7
'03	40,460,232	605,614	1,594,789	2.6
연평균 증감률(%)	8.4	5.2	5.5	△ 3.7

※ 자료 : ① 통계청 각 연도 “도소매업 통계조사”

②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 17쪽

3) 국내 단체급식 업체 육류 매입액('01년 기준 추정)

국내 단체 급식업체의 총 매출단가의 40%는 식재료비이고, 이 중 식재료비 중 12.5%가 육류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가정한 결과 주요 식자재업체의 총 육류 매출액은 965억원으로 추정된다<표 2-27>.

<표 2-27> 단체급식업체의 육류 매출액 추정

업 체 명	개시년도	연간 매출 (억원)	사업장수 (개)	육류 매출액 (억원)
CJ푸드시스템	94	6,000	700	300
삼성에버랜드	94	4,200	450	210
아워홈	89	4,100	420	205
신세계푸드시스템	93	1,300	230	65
아라코	91	800	260	40
이씨엠디	00	850	200	43
한화국토개발	94	822	250	41
63시티	97	420	120	21
제이제이캐터링	93	210	44	11
이조캐터링	89	200	60	10
아벨라고매	84	145	35	7
이바덤	97	135	24	7
고은캐터링	89	100	35	5

- ※ 자료 : ① 식품유통연감 2002.  
 ②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양계산물의 유통 및 소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04) 146쪽.  
 ③ 육류 매출액 추정치는 A 업체 시장 조사 기초함.

4)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원료육 구매

국내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매출단가 중 식재료비가 35%, 그중 육류 비율이 25%차지하며. 업체별로는 직수입 및 국내 구매, whole cut 및 portion cut 등으로 구입된다.

국내 주요 업체의 쇠고기 및 돼지고기 사용 부위는 쇠고기의 경우 안심, 등심, 갈비 등을, 돼지고기는 백립을 이용하며, 대부분 수입육을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표 2-28>.

<표 2-28> 레스토랑 사용 원료육 현황

구 분	점포 수	메뉴		부 위	
		쇠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53	등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소갈비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립스온더바비	안심 등심 갈비	백립 (호주)
TGI FRIDAYS	32	등심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베이비백립 등	등심 안심	백립 (프랑스)
베니건스	19	립아이 스테이크 찰스테이크 떡갈비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바비큐 폭립	등심 안심	백립
빔스	27	등심 스테이크 안심 스테이크 꽃등심 스테이크 T본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	바비큐 폭립스, 허브 마리네이드 포크 스테이크	등심 안심	백립 목심
토니로마스	7	등심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바비큐 립	등심 안심	베이비백립, 스페어립, (미국)
마르쉐	9	립아이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등심스테이크	바비큐 립	등심 안심	백 립
씨즐러	6	립아이스테이크 안심스테이크 등심스테이크	폭 립	등심 안심	백 립
까르네스 테이션	7개	구이류 (우육, 돈육, 계육, 오리고기)		차돌양지, 목심, 우설, 아롱사태, 천 각 불고기	목살 삼겹살 갈비 등

※ 자료 식품유통 연감 2002

한편 '01년도 기준으로 주요 패밀리 레스토랑의 매출액은 총 3,158억원이며, 이중 육류 구매액은 278억원으로 추정되나 매년 이들 경영체의 매출액은 '04년 기준시 2배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2-29>..

<표 2-29> 레스토랑별 매출액 및 육류 구매액 추정

(단위 : 억원)

업체명	매출액	육류 구매액
TGI. F	750	66
Benigans	550	48
Marche	430	38
Outback. S	350	31
Sky. L	350	31
Cocos	250	22
Vips	240	21
Tony. R	140	12
Sizzler	98	8
합 계	3,158	278

※ 자료 : 식품유통연감 2002

#### 5) 패스트 푸드(Fast Food) 시장규모

패스트 푸드의 경우 매출단가의 식재료비가 40%, 그중 9% 수준이 육류이며, 업체별로 구입후 가공생산하거나, 패티 상태로 수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요 패스트푸드사의 매출액('01년도 기준)은 1조 5천억원 이며 이중 육류 구입금액은 569억원으로 추정된다<표 2-30>.

<표 2-30> 패스트푸드별 매출액 및 육류 구매액 추정

(단위 : 억원)

구 분	매출액	육류 구매액(추정치)
롯데리아	5,400	194
맥도널드	2,860	103
BBQ	2,700	97
KFC	2,233	80
파파이스	1,298	47
버거킹	1,100	40
하디스	210	8
합 계	15,801	569

※ 자료 : 식품유통연감 2002 및 업체 자료

6) 기타 시장 및 해외 브랜드 국내 진출현황

외식에서 소비되는 대상은 단체 급식, 패밀리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 외에도 호텔, 한국음식점, 피자, 관광식당, 및 샵 샵 등 국내 식당(요식업체) 등으로 구분되며,

국내에 진출한 해외 브랜드업체로서는 「햄버거」에는 롯데리아, 버거킹, 맥도날드, 후레쉬니스버거, 「치킨」에는 KFC 및 파파이스, 「패밀리 레스토랑」의 경우 TGLF, 스카이라크 등이 있으며, '04년 기준 2조원 수준의 매출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출액 중 육류구입 비중을 9~12% 정도로 가정할 경우 20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 할 수 있어 향후 육가공관계자들은 이들 업체의 육류소비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1>.

<표 2-31> 외식관련 해외브랜드 진출 현황

구 분	브랜드명	국내업체	제휴업체	도입도	점 포 수		매출액 04기준 (억원)
					직영	가맹점	
햄버 거	롯데리아	롯데리아(주)	日 롯데리아	'79	839	-	4,500
	버거킹	SRS코리아(주)	美 버거킹	'82	95	-	760
	맥도날드	식맥, 맥킹	美 맥도날드	88, 91	335	-	2,860
	후레쉬니스버거	베내스인터네셔널	日후레쉬니스버거	'03	8	-	-
치 킨	KFC	SRS코리아(주)	美 트라이콘레스토랑	84(94)	195	-	1,700
	파파이스	T.S 해마로	美 AFC 파파이스	94	180	-	1,000
페밀 리 레 스 토 랑	T.G.I.F	(주)푸드스타	美 T.G.I.F	92	33	-	1,000
	스카이라	CJ 푸드빌(주)	日 스카이라	93	43	-	390
	씨즐러	바론즈인터네셔널	日 씨즐러	95	6	-	180
	토니로마스	(주)썬앳푸드	日 토니로마스	95	7	-	180
	베니건스	화이즈온(주)	美 베니건스	95	20	-	826
	칠 리 스	그로웰홀딩스	美 칠리스	96	1	-	-
	마 르 쉐	(주)아모제	스위스피베평	96	9	-	300
	우 노	동전개발(주)	美 우노	97	2	-	-
	아웃백스테이크 하우스	(주)오지정	美 아웃백스테이크	97	50	-	1,600
	이뽀뽀다뮤스	(주)에프아이디 엔터프라이즈	프랑스그룹 FLO	'00	3	-	-
	카후나빌	(주)사보이 F&B	美 카후나빌	'02	3	-	38
	루비튜스데이	(주)마제스틱코스	美 마제스틱그룹	'02	1	-	-
	블랙앵거스 스테이크하우스	(주)블랙앵거스 코리아	美 ARG	'05	1	-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 111쪽

### 제 3 장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의 개요

#### 제 1 절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의 의의 및 필요성

##### 1. 이력추적제의 개념

영어 표현으로 trace(기록, 흔적)와 ability(가능, 능력)를 합친 말로 ‘추적가능’ 또는 ‘추적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인 ISO 9000(2000)에서는 Traceability에 대해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것의 이력적용 또는 소재를 추적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제품에 관해서는 재료 및 부품의 원천, 처리의 이력, 출하 후 제품 배송 및 소재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체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일본에서는 Traceability 제도를 국내산 쇠고기의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체인의 각 단계에서 쇠고기와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이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 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Traceability의 요체는 식품의 정보를 결합함에 의해 식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기록된 식품 정보를 손쉽게 식품이 가는 곳의 추적이나 식품 이력의 역추적을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써 ‘생산, 처리, 가공, 유통, 판매의 푸드체인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역추적할 수 있을 것<sup>1)</sup>’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Traceability)의 개념을 ‘소의 생산·도축·가공·유통 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sup>2)</sup>’로 정해두고 소 개체별로 유일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귀표 등을 장착하여 출생·이동 및 도축단계까지 신고내용을 DB화하여 관리하고 도축단계 이후에는 식육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유통토록 하는 과정을 말한다.

## 2. 이력추적시스템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목적

시장개방으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의 유입가능성이 높아지고, 최근 미국의 광우병 발생(2003. 12.)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가 급감(전년 동기대비 2004년 1월 37%, 2월 29% 감소)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쇠고기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우 이력추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

1) 허 덕 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5. pp. 6.

2) 농림부, 축산물등급판정소 · 농협중앙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요령」, pp. 4



이와 더불어 국제적으로도 BSE 파동 이후 축산물을 중심으로 Traceability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차 농산물로 확대할 추세이며, 농축산물 수출 시 수입국에서 이력 추적에 대한 정보요구가 증대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와 국제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중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수입쇠고기나 육우가 한우로 둔갑 판매되고, 유통과정에서의 비위생적인 면 등을 이유로 한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한우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도 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에 맞는 한우 이력추적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우 이력 추적시스템 제도 도입의 목적은 우선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성 향상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제도 도입을 통하여 쇠고기 유통 경로의 투명성과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확대에 기여할 수 있겠다.

또한 위생상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조치로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소의 혈통, 산유능력, 사양관리 등을 개체식별번호를 중심으로 통합 관리·활용함으로써 제품관리 및 품질관리의 개선을 가져와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 제 2 절 선진외국의 운영 실태

### 1. 일 본

1997~2004년을 목표로 중장기 소 이표체계정비 및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01년까지 약 30만두의 젓소에 대해 귀표를 부착, 관리 중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2001년 9월 광우병이 발생됨에 따라 '01년 10월부터 '02.6월까지 가축개체식별 긴급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전산화 사업을 2002년 6월까지 앞당겨 조기에 완료, 약 450만두 모든 소에 귀표부착 하였으며 농림수산성에서는 소 개체 식별대장을 작성하고 인터넷에 의한 정보제공 체제를 정비 하였다.

2002년 소비단계에서의 이력제 실증시험을 거쳐 '03.6년 「소의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의 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 생산단계부터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토록 하고 2004년 12월부터는 가공·판매 유통단계 (특정 4대 요리에 한해 음식점 포함)까지 시행 하고 있다.

### 2. 프랑스

1966년 축산진흥법에서 가축의 개체식별 필요성을 규정 하였으며, 1969년 세계 최초로 동물식별법을 제정하여 소, 돼지, 양, 염소에 대하여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개체식별 전담지방사무소(EDE)를 설치하였다.

1998년 농장에서부터 도축단계까지 「Traceability 제도」를 의무화 하고 2000년 1월부터 지역별 개체DB를 국가DB로 구축하여 관리하기 시작하여 2000년 7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 3. 호 주

1996년 소 질병 및 건강증명을 위해 The National Vender Declaration(NVD)을 도입하였다. 1999년 6월 EU의 요구에 따라 빅토리아주에서 독자적인 법체계를 가지고 국가가축식별시스템(NLIS)를 도입하였다. 호주연방정부 법에는 가축질병, 이표사항은 주정부 관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2002년 빅토리아주내 모든 소의 귀표부착이 의무화 되었으며, 2004년 모든 주에서 Tag정착이 의무화되었다.

### 4. 미 국

미국은 2005년 5월 사육농장 등록계획을 발표하여 '06.3월 현재 235천 농가가 등록되었으며 '07년 초까지 가축의 추적시스템(Animal Tracking)시행을 위해 '06.4월 15자리 개체식별번호를 제작하고 귀표나 이력장치 중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며, 2008년 가축등록을 완료하기로 하고 2009년 1월에는 이동기록을 완료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긴 하나 USDA는 강제하는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별 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관계관들이

반발하고 있어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4개국의 추진상황을 정리해 보았다<표 3-1>.

<표 3-1> 주요 선진국의 제도추진 상황

국가	연혁 및 도입배경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7년~04년을 목표로 중장기 이표체계 정비 및 전산화 사업 추진</li> <li>- 2001년 BSE발생으로 기존의 사업을 조기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2년 6월 전 두수에 대한 이표장착 완료</li> <li>→ 소개체식별대장, D/B 관리체계 구축</li> </ul> </li> <li>- 2003년 12월부터 생산단계에서 쇠고기 이력제 시행</li> <li>- 2004년 12월부터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제 시행</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6년 축산진흥법 제정, 가축 개체식별의 필요성 규정</li> <li>- 1969년 동물식별법 제정(세계최초)</li> <li>- 1998년 농장~도축까지 Traceability 제도 의무화</li> <li>- 2000년 7월부터 유통단계까지 Traceability 제도 도입</li> <li>- 2005년 1월부터 유통되는 식품과 사료에 대한 Traceability 제도 도입</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0년 부루셀라와 우결핵 박멸을 위해 cattle-tracing system 도입</li> <li>- 1996년 소 질병 및 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NVD(출하자증명제) 도입</li> <li>- 1999년 : EU 요구에 따라 EU 수출용 소에 우선적용(victoria주)</li> <li>- 2004년 모든 주에서 소에 귀표부착 의무화</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2년초 생산~도축까지 가축이력제에 대한 초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7월까지 farm, feedlot, 도축장, 가공장 등 식별번호 부여 계획</li> <li>→ 2008년 1월까지 농가등록과 가축등록을 완료 계획</li> </ul> </li> <li>- 그러나 USDA는 이력제 참여를 강제하는 규제 방침을 정하고 있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생산자 개인기록의 보안유지와 관련한 반발 여론 때문임</li> </ul> </li> </ul>

이밖에 뉴질랜드는 2006년 3월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2009년에는 소, 사슴의 개체별 추적제도를 시행하고자 구상 중에 있으며, 또한 EU는 1992년 소를 포함, 가축증명 및 등록에 관한 directive, 1997년 패스포드정책 및 전산DB 구축, 2000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규칙을 시행중에 있다.

해외 국가의 이력추적제도의 추진방향은 전반적으로 이력추적 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여 제도이행에 따른 비용·조직을 효율화하고 있었으며 관리감독을 위해 제3의 비영리기관에서 담당토록 하고 이동증명서나 귀표가 없는 소는 시증거래 및 도축이 불가능토록 하고 있었으며, 모니터링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는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제 3 절 우리나라의 운영 실태 - 시범사업 추진현황

#### 1. 추진방향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의 추진 기본방향은 생산·도축·가공·판매단계까지의 이동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사양관리 및 위생·안전성 관련 정보는 브랜드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기록관리 및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농가의 기록관리 및 자율 신고의식이 미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개체식별번호 체계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실시기반을 정비함과 동시에, 우선 우수 브랜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단계적으로 후발브랜드 및 지역단위로 확대,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법령제정 등

전면 실시에 대비한 제도를 사전에 완비한다는 계획을 기본 방향으로 정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 2. 소 개체식별번호 체계 정립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체식별번호 9자리 수에서 시범사업 중에는 국제기구(ICAR) 권고안을 받아들여 출생국·성별 코드 등을 추가하여 15자리수로 하되, 추가 코드는 전산으로만 관리하도록 하였다.

현행 송아지 생산안정제 등 사업관리번호(농협), 종축 등록번호(종개협), 농가 자체관리번호 등 3가지 형태의 식별번호를 그대로 활용토록 하는 등 농가의 편의상,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선하였으며 생우 수입의 경우 수출품 식별 코드를 그대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좌측은 일반인쇄방향을 우측에는 단추형 귀표를 장착하고 재발급시에는 농림부 코드와 kor이 인쇄되어 있는 민이표를 수기로 부착토록 하는 등 시범사업 착수부터 현행 바코드번호로 통일하여 부여하도록 하였다.

## 3. 사업 추진체계

### 1) 정부(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법령 제정 등 제도를 총괄 담당한다.

### 2) 주관기관(농협중앙회 및 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에서는 귀표 구입·배부, 신고사항 접수·관리,

교육·홍보 및 현지 지도점검 등 현장의 생산단계 업무를 총괄을 담당토록하고 있다. 등급판정소에서는 도축장에서 모든 도축 두수에 동일성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 DNA 검사기관으로 송부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생산·도축·등급판정 내역 등을 DB화하여 관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시범사업기간 중 가공장과 판매장의 동일성 검사를 위한 시료는 지역의 등급판정소와 시·군의 축산과에서 각각 월 1-2회 채취하여 DNA 검사기관으로 송부하여 이를 도축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동일성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한편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향후 이력추적 시스템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전담기관(공무원조직 또는 민간조직) 신설 등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3) 지역별 협의체(시·군 등)

시·군을 중심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조합, 관련 협회, 브랜드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농가지도 등을 담당하고 출생(폐사)·이동 등 농가의 신고내용을 전산 입력할 단체를 지정·운영하되 농가가 직접 입력할 수도 있다.

### 4) 시·도 위생검사기관

도축장에서 귀표 부착 확인 및 도축검사결과를 전산입력하고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등 농가 질병관리 지도뿐만 아니라 도축자, 가공업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 5) 사후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시스템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사가 도체별로 소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DNA 검사기관으로 이송·보관하여, 가공장, 판매장에서 채취한 쇠고기와 검사기관에 보관중인 샘플과 일치하는지 무작위 샘플검사로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 6) 각 단계별 정보를 DB화하여 관리하되 최소 정보만 공개

국가단위에서는 생산농가 등으로부터 개체식별번호에 의한 최소 정보<sup>3)</sup>만 신고 받아 관리하고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에 의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기관(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공유하여 사업추진에 활용하도록 한다. 단,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표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 추진체계를 정리하면 <표 3-2>로 정리할 수 있다.

---

3) 생산단계 : 소유자(성명, 주소, 전화, 사육지 등) 및 소유가축(개체식별번호, 출생일, 성별, 축종, 모개체식별번호) 현황

도축단계 : 도축장, 도축일, 등급판정결과

- 경기도 등 이미 전산 입력된 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개발한 중축개량협회 등과 협의 추진하고,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 등 위생·안전성 관련 정보는 브랜드 경영체 등이 선택적으로 기록·관리 및 제공한다.

가공단계 : 가공장, 가공일, 부분육 생산 및 판매실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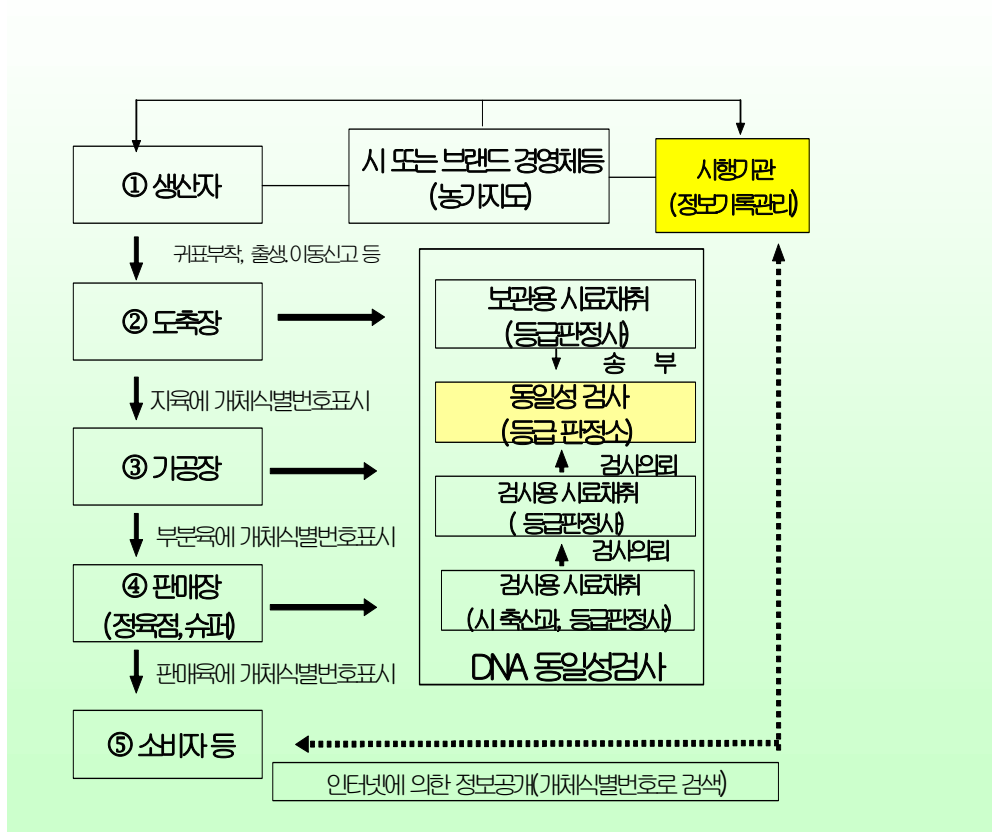
판매단계 : 판매장, 부위별 매입 및 판매실적 등



<표 3-2>



## 소고기이력추적체계도



- ① 주민번호와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귀표장착 및 등록
  - 농가 스스로 장착·등록 원칙, 지자체·축협·브랜드경영체 가능
- ② 개체별로 번호표시, 모두수에 대해 보관용 시료채취, 등판소 본부로 송부
- ③ 개체별로 번호표시 월 1회 무작위 샘플채취, 등판소로 송부
- ④ 개체별로 번호표시 월 2회 무작위 샘플채취, 등판소로 송부
  -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보관용 시료와 검사용 시료의 DNA 동일성감사 실시
- ⑤ 판매장의 터치스크린, 인터넷([www.mtrace.net](http://www.mtrace.net)), 휴대폰(KTF)를 통해 조회가능(생산자, 비육상황 등 15개 정보 제공)

#### 7) 전면 의무실시 대비 법령 제정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 평가하여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추진기관, 농가 및 도축·가공·판매업자 등의 신고·표시의무, 정보 관리 및 공표방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등을 2007년 중 제정 완료 하고 전면 실시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 4. 시범사업 추진현황

2004년 5월중 추진계획 확정 후 8월까지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시달하고, 축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예산확보 후 6월부터 9월까지 전산시스템 구축 및 S/W개발, 2004년 10월부터 우수브랜드 9개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에 착수하였다.

시범 사업주관 기관으로는 축산물 등급판정소, 농협중앙회, 축산연구소 3개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및 인원, 유사업무, 업무추진 능력,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생산단계)와 축산물등급판정소(유통단계)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고,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총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시·도에서 한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 참여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23개 브랜드가 시범 사업 참여를 신청하였으며, 각 브랜드 사업체별 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9개 브랜드 및 연계사업장인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을 각각 10개소씩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하였다<표 3-3>.

<표 3-3> 시범사업 참여 브랜드, 도축장, 판매장 지정현황

브랜드명	도 축 장	가 공 장	판 매 장
안성맞춤한우	안성축산진흥공사	대한사료공업(주) 인티사업본부	LG백화점(부천점)
양평개군한우	신영축산	대림유통	삼성플라자(분당점)
대관령한우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농협부천축산물공판장 농협서울축산물공판장	브랜드축산물전문점(문정점) 농협하나로마트클럽(양재점)
횡성한우	다원산업	횡성축협육가공공장	이마트(양재점)
장수한우	한국냉장 중부공장	한국냉장 중부공장	한국까르푸(월드컵물점)
섬진강뜨레한우	우진산업	한예들	뜨레한우(수지점)
남해화전한우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제일축산	대동백화점(창원)
하동솔잎한우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	김해축협 축산물가공센터	농협부산경남유통 하나로클럽(부산점)
팔공상강우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	대구축협 하나로마트(본점)	대구축협 하나로마트(본점)
9개 경영체	10	10	10

※ 자료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5. 단계별 추진 내용

현재까지 한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은 3단계 절차를 걸쳐서 시행되었다. 우선 2004. 10월부터 생산 단계 전산 입력을 실시하였고, 그 후 2004. 12월부터 도축, 가공단계

까지 전산 입력을 하도록 조치하였다. 마지막으로 2005. 2월부터 모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판매장에서도 터치 스크린을 활용하여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여 판매하고,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05년 8월에는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소관 관련 정책사업간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귀표 체계 등 일부미비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향후 전면실시를 대비하여 브랜드 경영체 5개와 함께 지역단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후 참여 신청을 받아 경기 파주, 전북 김제, 경남 김해시 3곳을 추가하여 2005년 12월부터는 「14개 경영체, 3개 지역」에서 생산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 왔으며, 2006년 1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 한우농가의 기대수요가 폭증하여 정부에서는 당초 '09년 전면시행 계획을 1년 앞당겨 '08년부터 전면 시행토록 방침을 앞당김에 따라 시범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통한 본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시범사업의 확대실시가 더욱 필요해져 '06년 7월 6개 브랜드 경영체를 추가 지정하여 2006년 11월 현재 20개 브랜드 경영체, 3개 지역에서 71개 판매장을 통해 이력추적이 가능한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다 <표 3-4>.

<표 3-4> 시범사업 참여 경영체 지역 및 지정사업장 현황

참여대상	연계 사업장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판매수
지역				
<지역단위> : 3				
경기 과주시	농협 부천	농협 부천	과주축협 금촌판매장	1
전북 김제시	분광산업(주)축렵	장수김제축협(주)축렵	전북한우협동조합 판매장, 터미널총채보리 한우판매장	2
경남 김해시	부경축공	김해축협	김해축협 하나로마트(본점, 서부점, 가야점), 마산 대우백화점	4
브랜드 업체				
<06년 참여> : 6				
한우람광역한우	한냉중부	한냉중부	용인축협판매장	1
이천한우맛드림	협신식품	안양축협육가공공장	이천축협판매장	1
양주골한우	우림축산	양주축협육가공공장	양주골한우판매장	1
하이북한우	하이미트21C	하이미트21C	춘천철원축협 하나로마트(강남점)	1
진설한우 공동브랜드	대대푸드원	대대푸드원	남원축협마트	1
영주한우	소백산한우	소백산한우	영주축협 하나로마트(본점, 휴천점)	2
<기존업체> : 14				
홍천 늘푸름한우	제일산업	홍천축협	홍천축협판매장	1
상주 감먹는한우	농협고령	농협고령	상주축협판매장	1
합천황토한우	농협고령음용	농협고령제일축산	합천축협판매장, 이마트(청서, 구미, 경산, 월배)	5
순한한우	농협나주	농협나주	롯데슈퍼(여의점), 롯데마트(수지점, 영등포, 구로, 중계, 삼실, 안산, 여수, 사상, 진장)	10
함평천지한우	농협나주	농협나주	함평축협 하나로마트	1
안성마춤한우	도드람LPC	대해사(주)리보	GS스케이(부천점), 신세계백화점(문점)	2
양평개군한우	신영축산	대림유통	삼성플라자(분당점)	1
뜨레한우	우진산업	(주)한예들	뜨레한우(수지점), 레미안축산, 오피스푸드(대치점, 주안점), 이마트(상봉, 일산, 서수원, 문산)	8
형성한우	다원사업 하이미트21C	회성축협 하이미트21C	형성한우프라자, 회성한우프라자(창동점), 이마트(양재, 분당), 축협 하나로마트(본점, 둔내점)	6
대관령한우	농협서울영창기업(주)	농협서울대관령가공장	하나로양재점, 이마트(은평, 가양, 죽전)	4
장수한우	한냉중부(주)	한국장중부(주)	까르푸 월드컴플렉스 이마트(신성, 수명, 일수, 고산, 천안, 광주)	8
팔공상강우	농협고령	대구축협	대구축협(본점), 대백프라자, 동아백화점(수정점, 쇼핑점)	4
남해화전한우	김해축공	제일축산	대동백화점, 이마트(만촌, 해운대), 현대백화점(동구점)	4
하동슬잎	부경축공 삼호축산(주)	김해축협가공장 대신육가공(주)	하나로클럽(부산), 하나로마트(부천)	2
합계	23개	21	계	71

※ 농림부, 등급판정소, 2006년 11월 현재

당초 '06년 중 11만두 수준에 대해 시범 실시키로 하였으나 '06.11월부터는 20개 경영체, 3개 지역에서 전산입력 등 시범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현재 한우 전체 사육두수의 10%수준 인 21만두가 동 시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표 3-5>.

<표 3-5> '06.11월 현재 시범사업 추진현황

구 분		'04	'05	'06.10월말	'06.11월예정
참여업체		9업체	9	17개업체·지역	23개업체·지역
참여두수		40천두	59	200	210
연계 사업장	도축장	10(개소)	13	21	21
	가공장	10	13	23	23
	판매장	10	30	71	80

※ '04.12월 40천두 규모를 시행한 시범사업을 2년도 지나지 않아 210천두로 참여두수가 5배 이상 확대실시하게 되었다.

※ 자료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현재까지 정부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 시범사업을 효율적 추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시범사업 착수를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하여 귀표 구입비만 지원하고 개체등록관리 내용 등은 경영체에 전담토록 하고 전산장비구입 등 기반구축 비용에 한해 최소한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04년 착수 때에는 축발기금 1449백만원을 전용하여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DNA 검사기기를 주로 구입하였으며, '05년 367백만원, '06년 950백만원의 축발기금을 지원하고 전산등록프로그램 및 백업화일 확충, DNA검사기기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

이처럼 보수적인 측면으로 동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농림부에서 '05~98년 중 추진한 소 전두수 전산화 사업의 실패경험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UR이후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한우 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급상황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전면실시한 동 사업은 법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전담기구·인원도 없이 시범사업 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함에 따라 전산시스템도 열악하고, 농가의 참여 의지도 없어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당시와 비교해서 위생안전에 관한 관심, IT등 전산발달 등 여건이 크게 달라져 있긴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본 사업으로 연착륙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이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자 소비자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소비자들 모두 동 제도의 조기 확대실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 없이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2007년도의 시범사업 참여 두수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의 당초 로드맵 상으로는 2007년 중 40만두 수준을 예상하고 있었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100만두 이상의 한육우가 동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정부도 예산규모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가대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제 4 장 이력추적시스템 운영 실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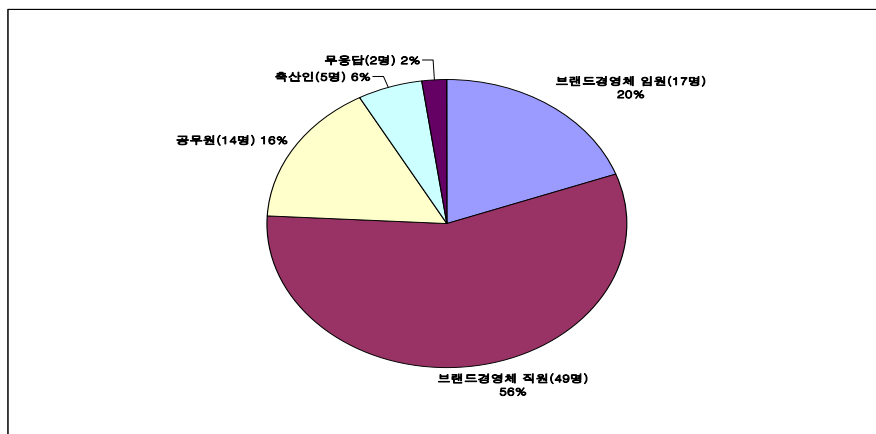
### 제 1 절 조사개요

현재 한우이력추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20개 브랜드경영체와 3개지역(과주, 김제, 김해)의 관계관들을 대상으로 '06.8월에 100명에게 설문서를 송부, 이중 87명이 응답을 해주었으며<조사표 1>, '06.5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를 통한 축산물 소비의향 설문조사 시에는 670명이 응답해 주었다<조사표 2>. 이력제 관련 응답자는 브랜드사업담당 임직원이 75.86%, 각 지자체에서 브랜드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16.09%, 축산농가 5.75% 등으로 집계되었다<표 4-1>.

실태조사 관련 답변은 앞서 시행중인 브랜드경영체의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표 4-1> 설문대상자의 직업

구분	브랜드경영체 임원	브랜드경영체 직원	공무원	축산인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17	49	14	5	2	87
비율	19.54	56.32	16.09	5.75	2.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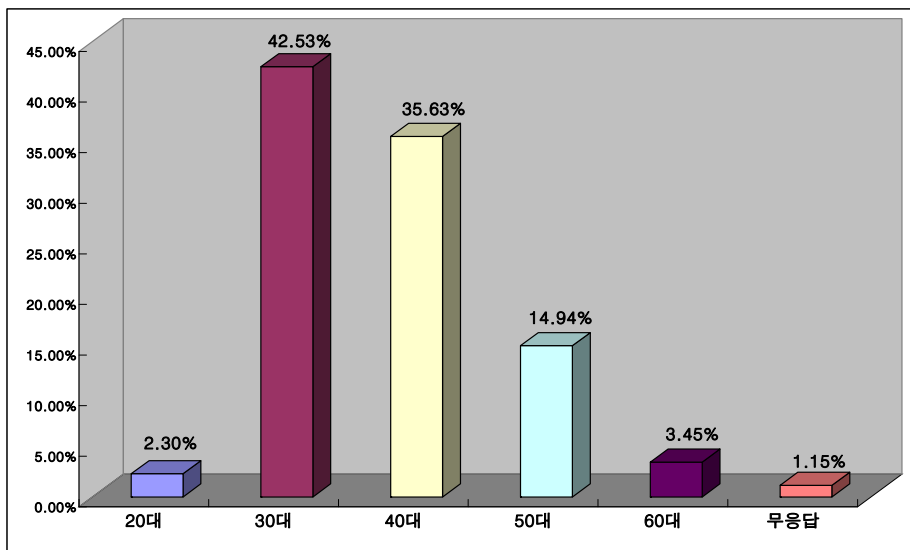




한우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의 특성상 담당 임·직원의 대부분이 30~40대의 젊은 층이 78.16%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의 특성상 전산시스템의 새로운 기술 습득, 기록·관리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4-2>.

<표 4-2> 설문대상자의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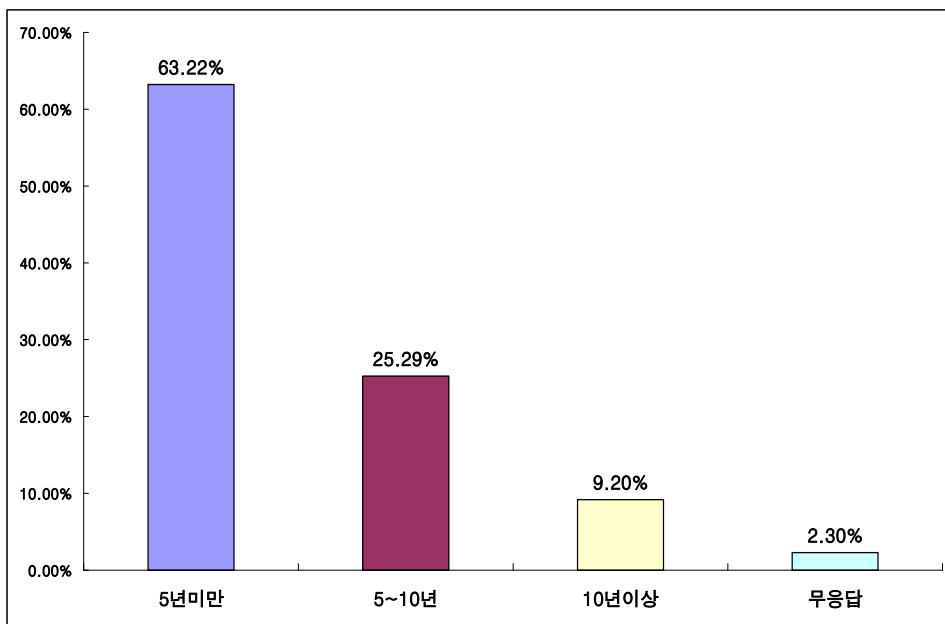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2	37	31	13	3	1	87
비 율	2.30	42.53	35.63	14.94	3.45	1.15	100



2003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우브랜드사업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태동단계에 있다. 이는 설문대상자 또한 마찬가지인데, 설문대상자의 63.22%가 브랜드사업 참여 경력 5년 미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10년 이상 된 브랜드사업 참여자는 9.20%에 불과했다.

<표 4-3> 브랜드사업에 참여한 경력

구 분	5년미만	5~10년	10년이상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55	22	8	2	87
비 율	63.22	25.29	9.20	2.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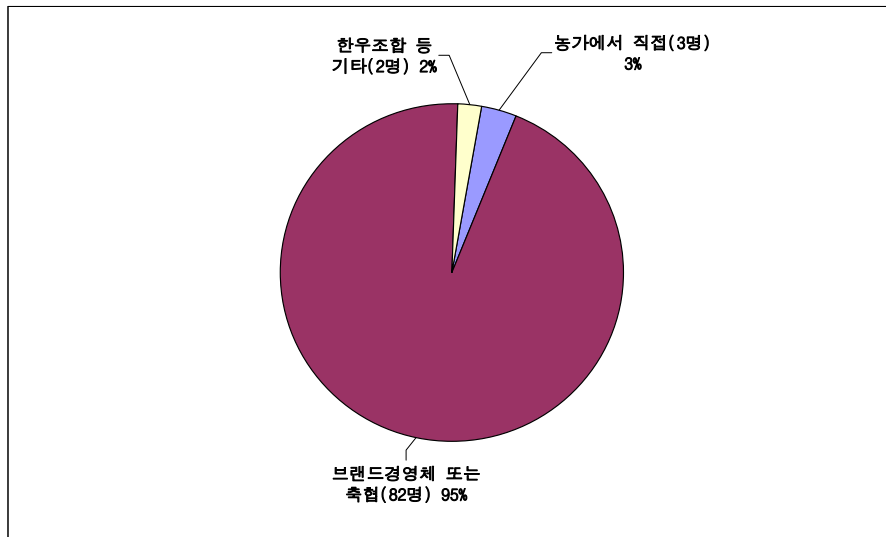
## 제 2 절 브랜드경영체 담당자 의식분석

한우 이력추적 시스템은 기존 모든 소에 대해서도 귀표를 부착하지만 어미 소로부터 태어난 송아지에 귀표를 장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사실상 귀표장착은 기본적인 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응답자의 대부분인 94.25%는 브랜드경영체(또는 축협)에서 귀표장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표 4-4>.

실제로 지역단위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귀표구입비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축협 등에서 대행하고 있어 이들 경영체가 직접 장착, 관리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귀표장착 실시주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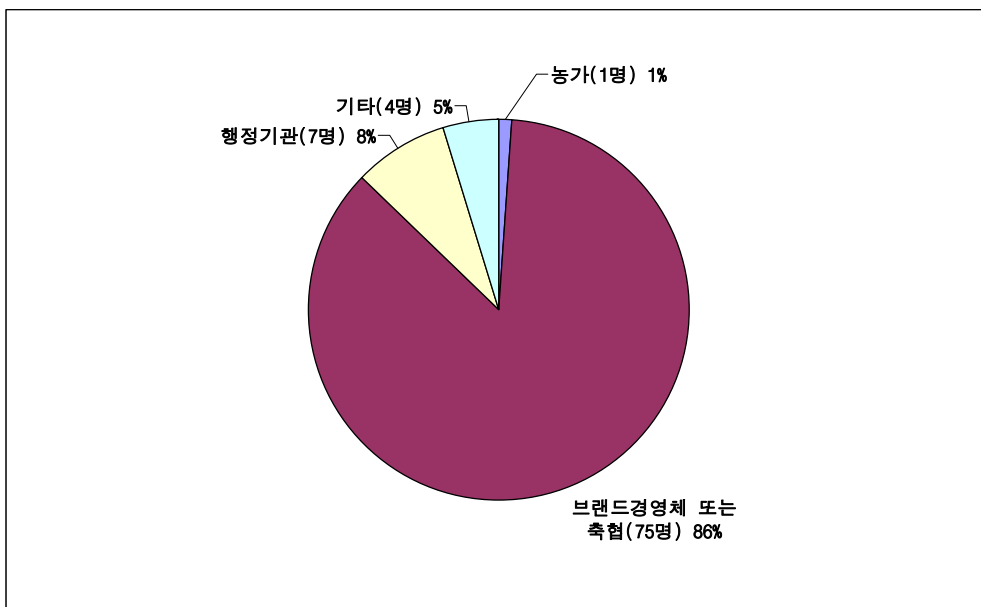
구 분	농가에서 직접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한우조합 등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3	82	2	0	87
비 율	3.45	94.25	2.30	0	100



귀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귀표를 구입하는 등 약간의 비용부담은 브랜드경영체 86.21%, 행정기관 8.05%로 나타났다. 브랜드육성을 위해 소수 지자체에서 귀표장착비를 경영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비율도 10% 정도 응답된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표 4-5> 귀표장착 비용 부담자 (단위 : 명, %)

구 분	농가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행정기관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1	75	7	4	0	87
비 율	1.15	86.21	8.05	4.60	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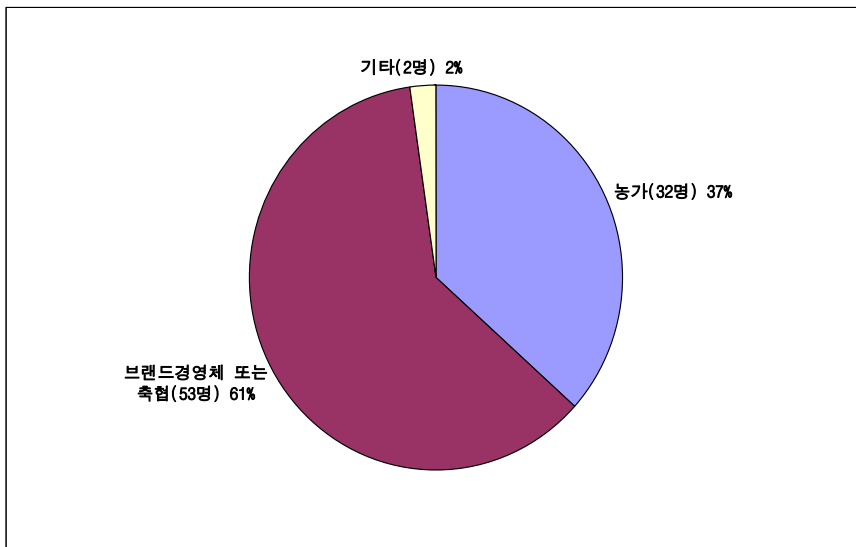


귀표장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탈락, 변조 등 문제 발생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브랜드경영체 60.92%, 농가 36.78%로 나타나 대다수는 브랜드경영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하였지만 농가라고 대답한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력추적 시스템의 정착단계에는 농가들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의식을 가져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4-6>.

<표 4-6> 귀표장착의 책임 소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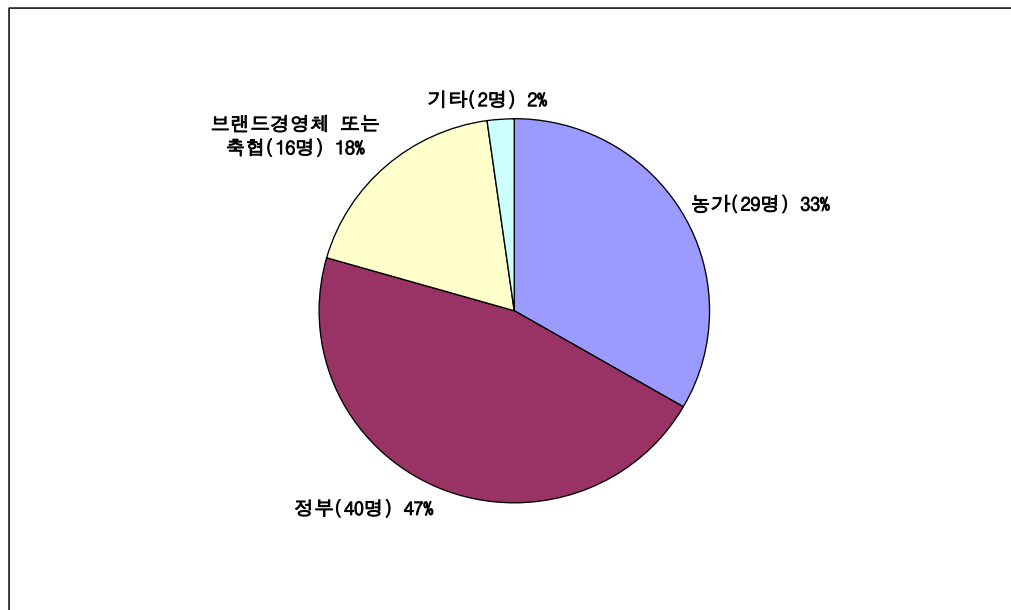
구 분	농가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32	53	2	0	87
비 율	36.78	60.92	2.30	0	100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에 수반하는 비용 중 현재 대부분은 브랜드경영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향후 생산단계(귀표구입, 장착, 전산등록 등)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들의 45.98%는 정부, 33.33%는 회원농가, 18.39%는 브랜드경영체로 대답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도 일정 부분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또한 현재 브랜드경영체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표 4-7>.

<표 4-7> 생산단계 비용 부담자(장기)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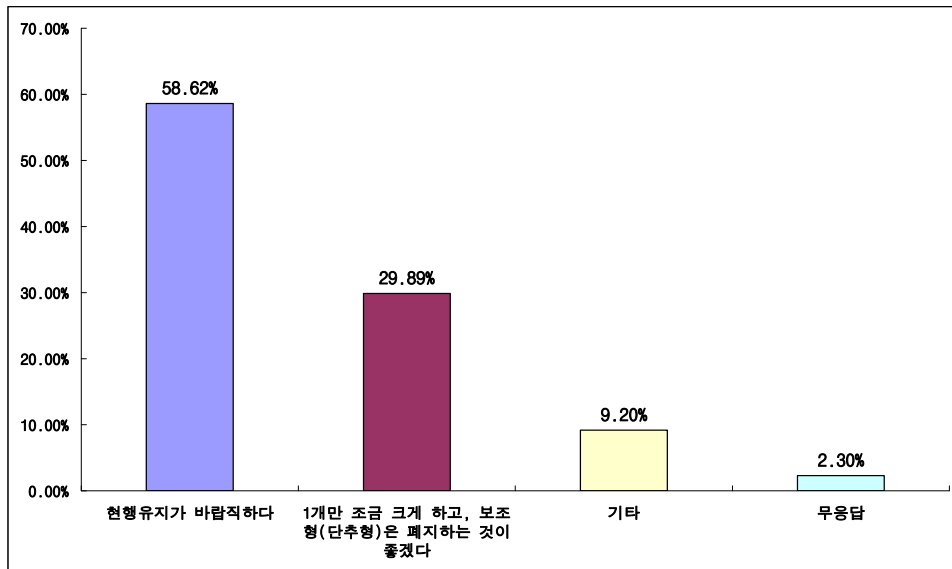
구 분	농가	정부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29	40	16	2	0	87
비 율	33.33	45.98	18.39	2.30	0	100



현재 귀표는 바코드형과 버튼식을 동시에 장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2조식의 개선방안에 관해 질문한 결과,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 58.62%, 형태를 약간 바꾸어 1개만 조금 크게 하고 보조형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29.89%로 나타나, 절반이상 응답자는 현행 2조식에 대하여 긍정적이었지만 약간 수정·보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표 4-8>.

<표 4-8> 현행2조식 귀표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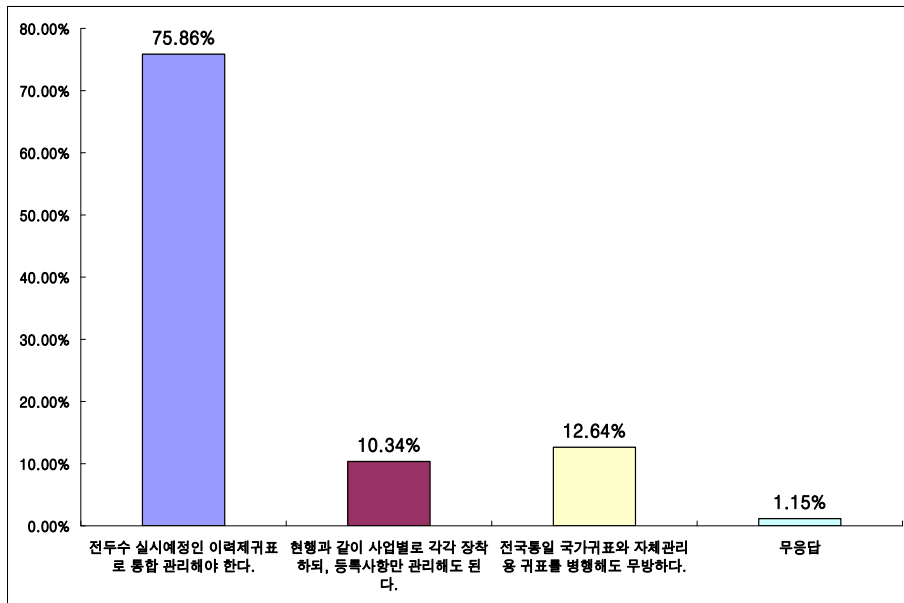
구 분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	1개만 조금 크게 하고, 보조형(단추형)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51	26	8	2	87
비 율	58.62	29.89	9.20	2.30	100



이력추적 시스템의 전국확대실시와 관련해 현행 각종 정책사업마다 상이한 귀표를 사업위주로 따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의 통폐합에 관해 질문한 결과 74.71%가 전두수 실시예정인 이력제 귀표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답하여 지역별, 사업별로 나뉘어져 있는 현행 제도를 국가가 나서서 통합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4-9>.

<표 4-9> 귀표 관리 방법 (단위 : 명, %)

구 분	전두수 실시예정인 이력제귀표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사업별로 각각 장착하되, 등록사항만 관리해도 된다.	전국통일 국가귀표와 자체관리용 귀표를 병행해도 무방하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65	9	12	1	87
비 율	74.71	10.34	13.79	1.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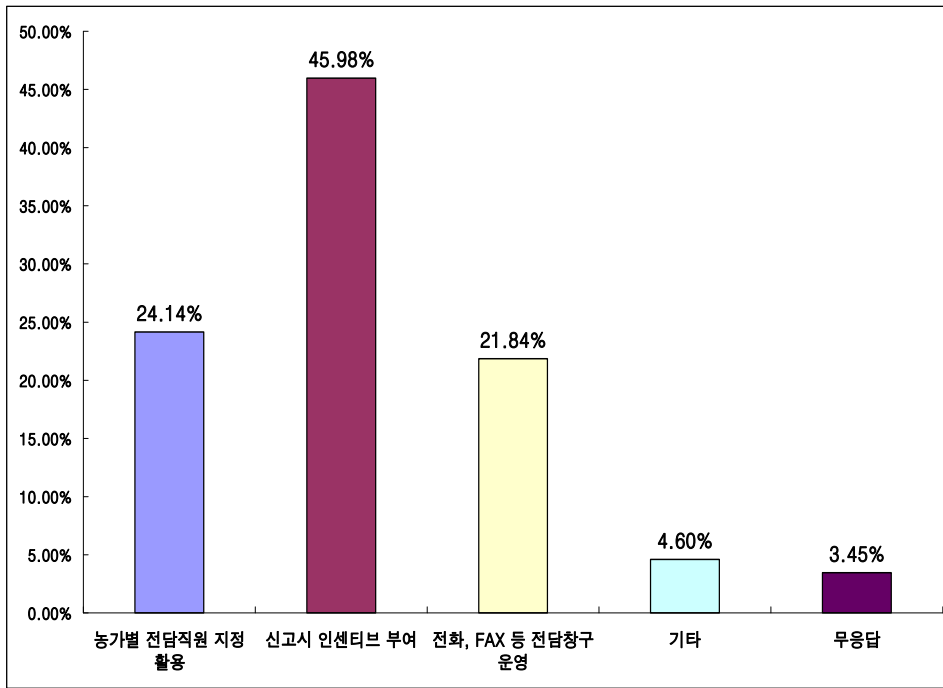




개체에 생산, 이동 등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한 바, 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45.98%, 농가별 전담직원 지정 활용 24.14%, 전담창구 운영 21.84% 등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0>.

<표 4-10> 정확한 기록관리 방안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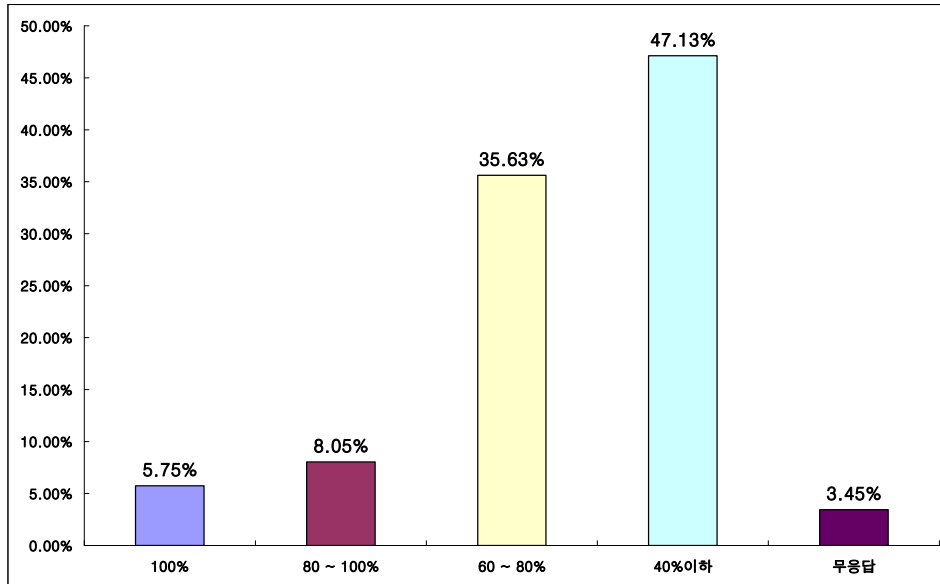
구 분	농가별 전담직원 지정 활용	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전화, FAX 등 전담창구 운영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21	40	19	4	3	87
비 율	24.14	45.98	21.84	4.60	3.45	100



철저한 이력추적 시스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의 품종, 성별, 출생, 거세일시, 출생지 및 사육지 등 생산·사육관련 항목의 전산등록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상은 농가가 되었든 브랜드경영체가 되었든 기간에 기록이 매우 미비하다. 현 수준에서 농가에서의 신고, 기록 등 전산등록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결과 35.63%는 60~80%가 47.13%는 40%이하 수준에 불과하다고 응답하고 80%이상 신고기록이 가능하다고 응답하는 인원은 14% 수준에 불과하여 농가들이 실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표 4-11> 농가 기록, 전산등록 가능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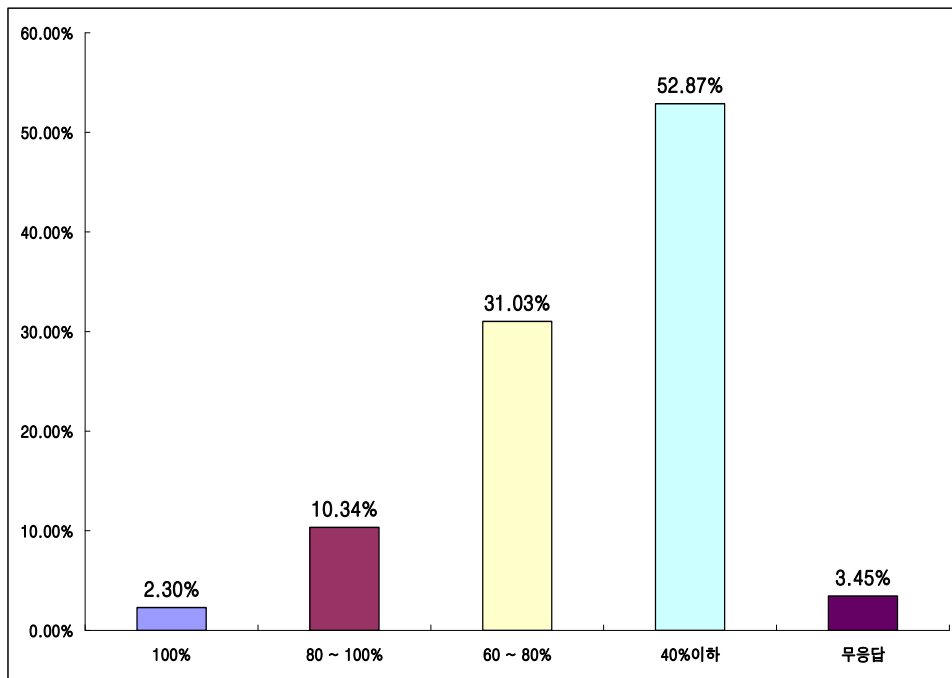
구 분	100%	80 ~ 100%	60 ~ 80%	40%이하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5	7	31	41	3	87
비 율	5.75	8.05	35.63	47.13	3.45	100



이력추적 시스템을 이미 도입, 운영되고 있는 선진외국의 경우 통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동 및 출하상황관리이다. 현행 시범사업에서 이동·출하 등 이동상황에 대한 농가의 신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52.87%가 40%이하라고 대답하여 아직까지는 이동상황에 대한 관리가 크게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표 4-12> 이동상황에 대한 농가의 신고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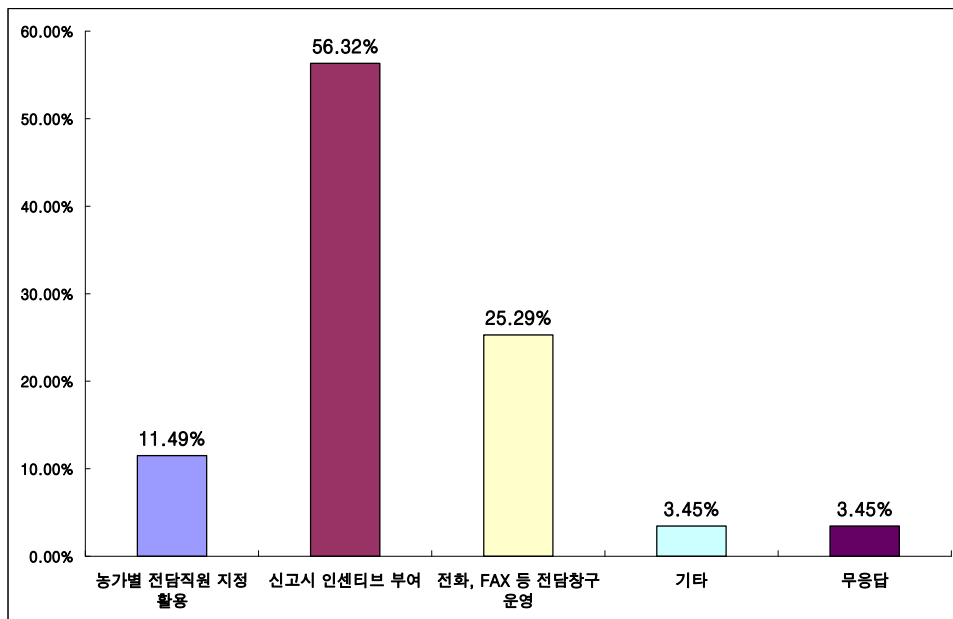
구 분	100%	80 ~ 100%	60 ~ 80%	40%이하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2	10	26	46	3	87
비 율	2.30	11.49	29.89	52.87	3.45	100



이동상황의 신고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한 바, 56.32%는 신고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고, 25.29%는 전화, FAX 등 전담창구를 운영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시작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브랜드경영체에서 약간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13>.

<표 4-13> 이동 및 출하 등 상황관리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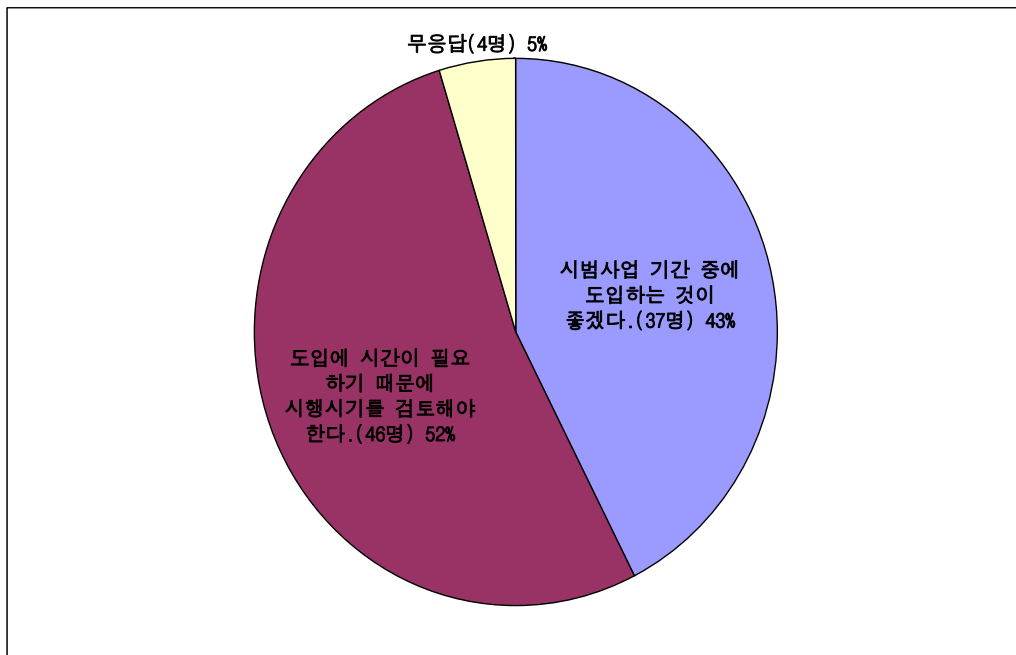
구 분	농가별 전담직원 지정 활용	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전화, FAX 등 전담창구 운영	기타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10	49	22	3	3	87
비 율	11.49	56.32	25.29	3.45	3.45	100



앞에서 지적한 바 있는, 소 이동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진외국의 경우 이동증명서(패스포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52.87%는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42.53%는 시범사업 기간 중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어 시범사업의 확대 추진시 증명서 도입을 시행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표 4-14> 이동증명서 도입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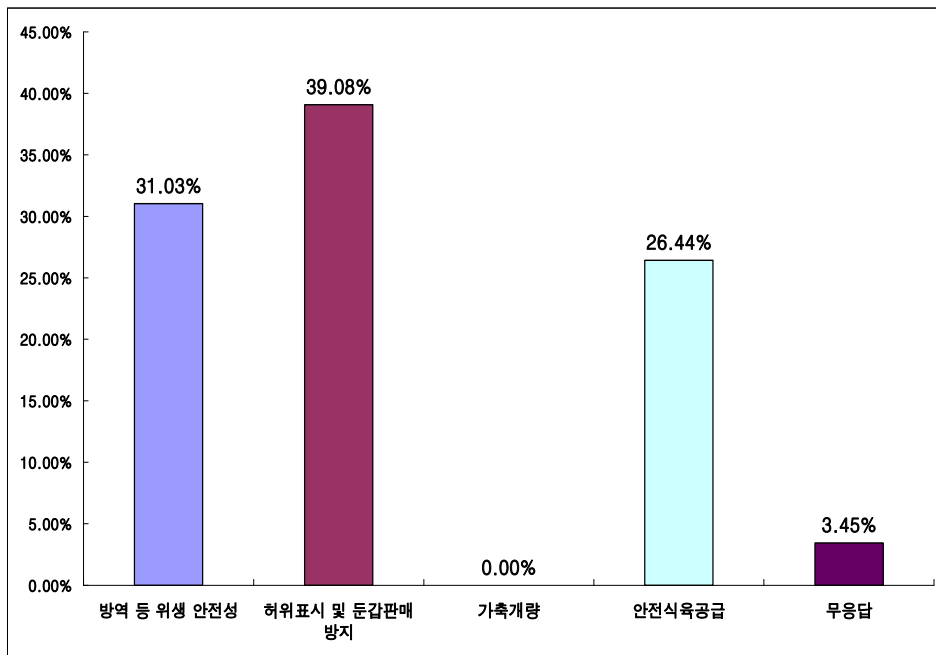
구 분	시범사업 기간 중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37	46	4	87
비 율	42.53	52.87	4.60	100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의 가장 큰 목적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방지 39.08%, 방역 등 위생 안전성 31.03%, 안전식육 공급 26.44%로 나타나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방역과 부정유통방지를 함께 포함해 주길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본 사업 관련하여 추진목적에 명확히 재정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표 4-15>.

<표 4-15>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 목적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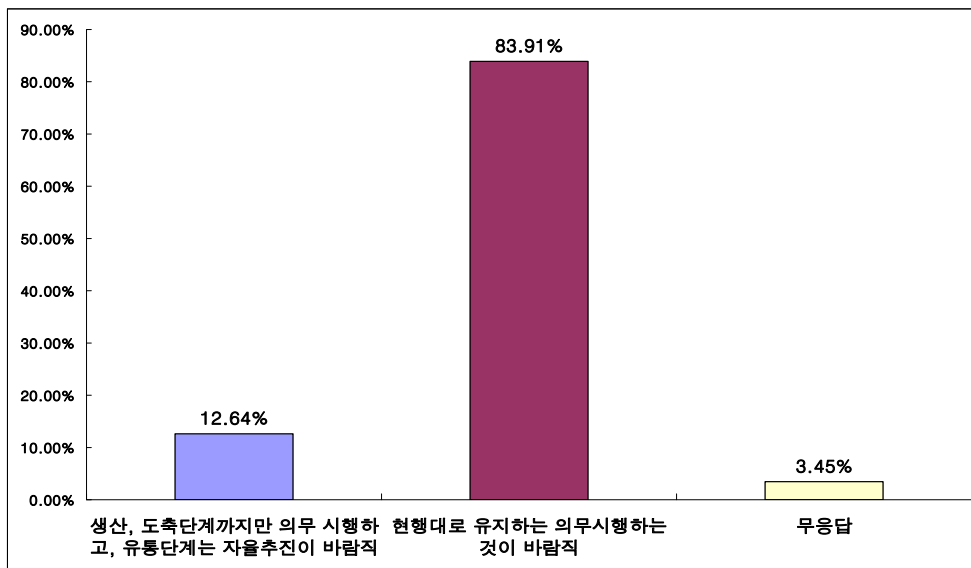
구 분	방역 등 위생 안전성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방지	가축개량	안전식육 공급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27	34	0	23	3	87
비 율	31.03	39.08	0	26.44	3.45	100



현재 이력추적 시스템은 「사육단계에서부터 판매단계」까지 일괄 적용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행 운용 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83.91%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였으며 생산·유통 단계별 구분시행 또는 자율에 맡기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이며 어렵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생산단계는 물론 판매단계까지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표 4-16> 현 운용 시스템에 대한 견해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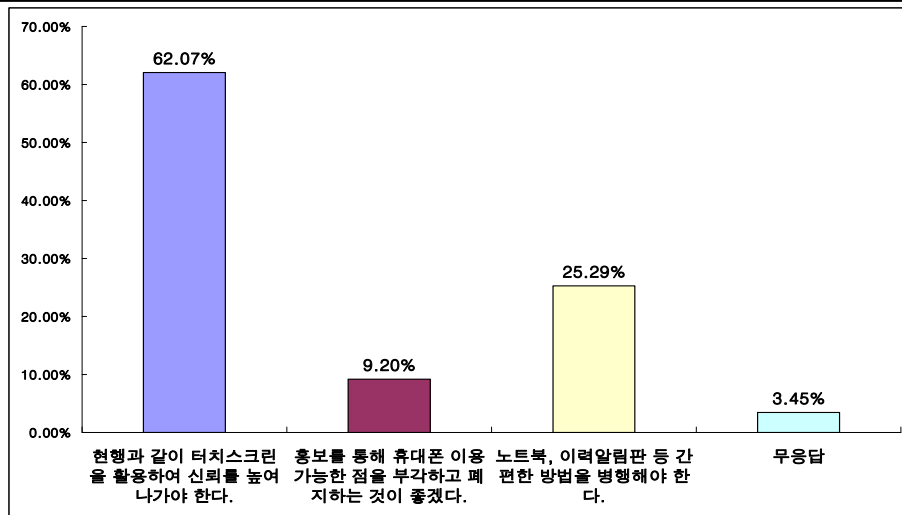
구 분	생산, 도축단계까지만 의무시행하고, 유통단계는 자율추진이 바람직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무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11	73	3	87
비 율	12.64	83.91	3.45	100



이력추적 시스템은 사육단계에서 제 아무리 관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유통단계, 즉 판매장에서 제대로 소비자에게 전달 되지 않고서는 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현재 연계 사업장인 판매장의 경우 터치스크린을 통해 정보를 제공 하여 교육·홍보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46천여개 식육판매점마다 이 같은 시설을 해야 하는지에 의문 점이 있어 판매장에서 이력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63.22%가 현행과 같이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대답하고 있으며 30% 수준은 간편한 방법도 무한하다고 하고 있어 시범사업 확대와 전면 실시 때에는 다소 융통성을 주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7>.

<표 4-17> 판매장에서 이력정보 제공 방법 (단위 : 명, %)

구 분	현행과 같이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한다.	홍보를 통해 휴대폰 이용 가능한 점을 부각하고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노트북, 이력알림판 등 간편한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55	8	21	3	87
비 율	63.22	9.20	24.14	3.4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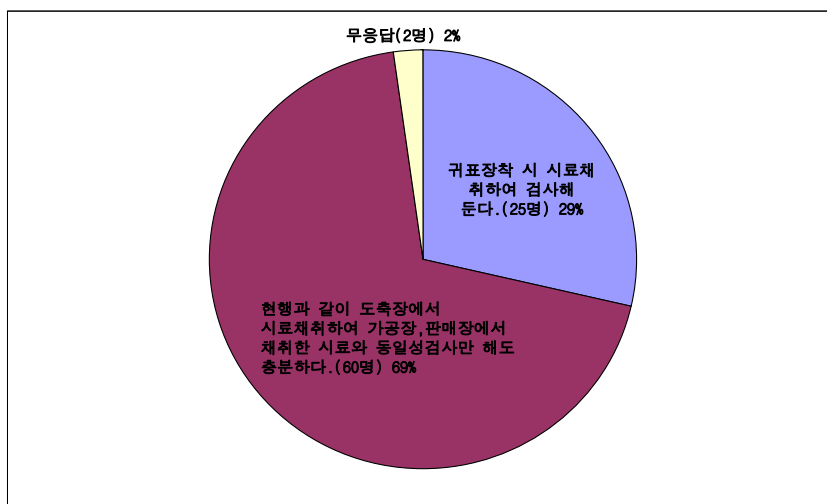




귀표 탈락율이 높으며 인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의 변조율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단계에서 개체별 DNA를 검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68.97%가 현행과 같이 해도 충분하다고 대답하고 있고 28.74%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시험기간 중 생산단계에서의 DNA채취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 검사결과·활용도·실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표 4-18>.

<표 4-18> 생산단계 DNA 검사의 필요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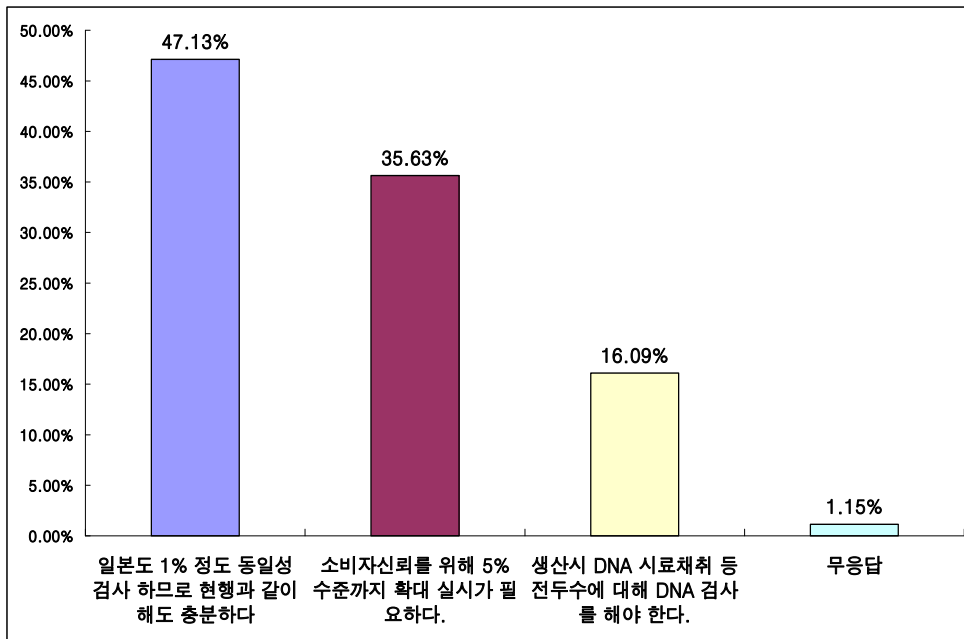
구 분	귀표장착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해 둔다	현행과 같이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가공장·판매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동일성검사만 해도 충분하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25	60	2	87
비 율	28.74	68.97	2.30	100



현재 도축두수의 3% 수준에 대해 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개체를 확인하고 있는데, 향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47.13%가 현행과 같이 해도 충분하다고 대답한 반면, 35.63%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5%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동일성 검사 실시율의 상향 필요성을 요구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9>.

<표 4-19> DNA 검사 수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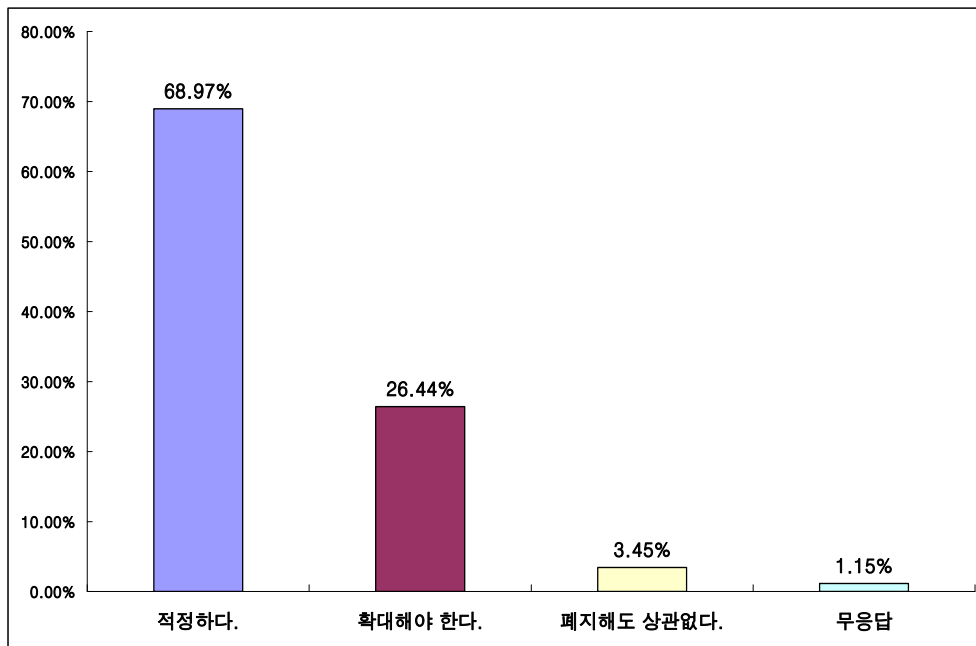
구분	일본도 1% 정도 동일성검사 하므로 현행과 같이 해도 충분하다	소비자신뢰를 위해 5% 수준까지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생산시 DNA 시료채취 등 전두수에 대해 DNA 검사를 해야 한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41	31	14	1	87
비율	47.13	35.63	16.09	1.15	100



또한 현재 가공장 월1회, 판매장 월2회 샘플을 수거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68.97%가 적정하다, 26.44%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일본의 1% 정도 실시율과 비교해 볼 때 이 부분은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도 될 것 같다.< 표 4-20>.

<표 4-20> 가공장, 판매장에서의 DNA 검사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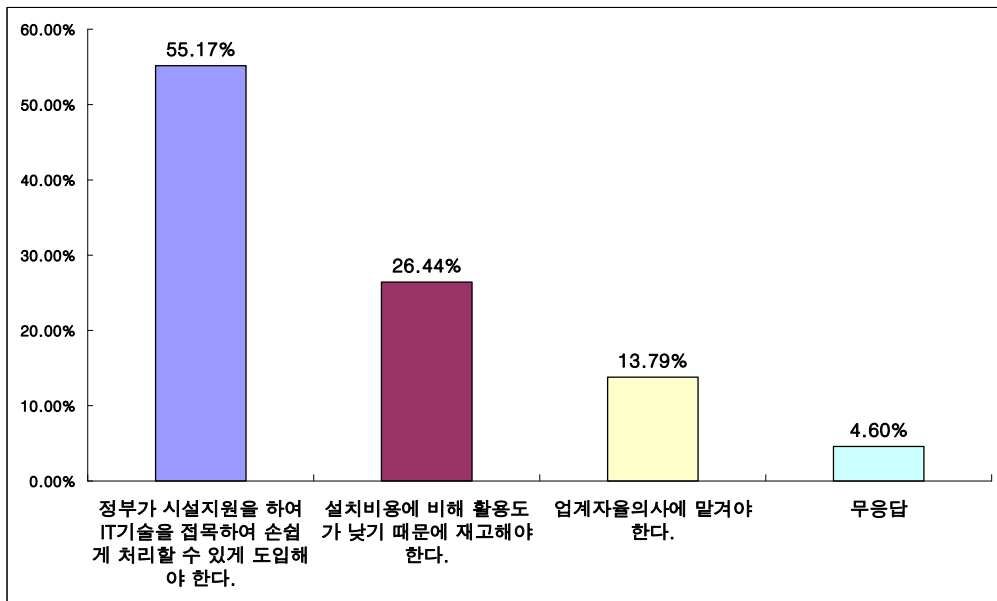
구 분	적정하다	확대해야 한다	폐지해도 상관없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60	23	3	1	87
비 율	68.97	26.44	3.45	1.15	100



최근 국가정책 사업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RFID를 이용한 개체관리시스템 도입과 관련해서는 55.17%가 정부가 시설 지원을 하여 IT기술을 접목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26.44%는 설치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대답하여 투자비용에 비해 큰 효과가 없지만 첨단기술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다<표 4-21>.

<표 4-21> RFID를 이용한 개체관리 시스템 도입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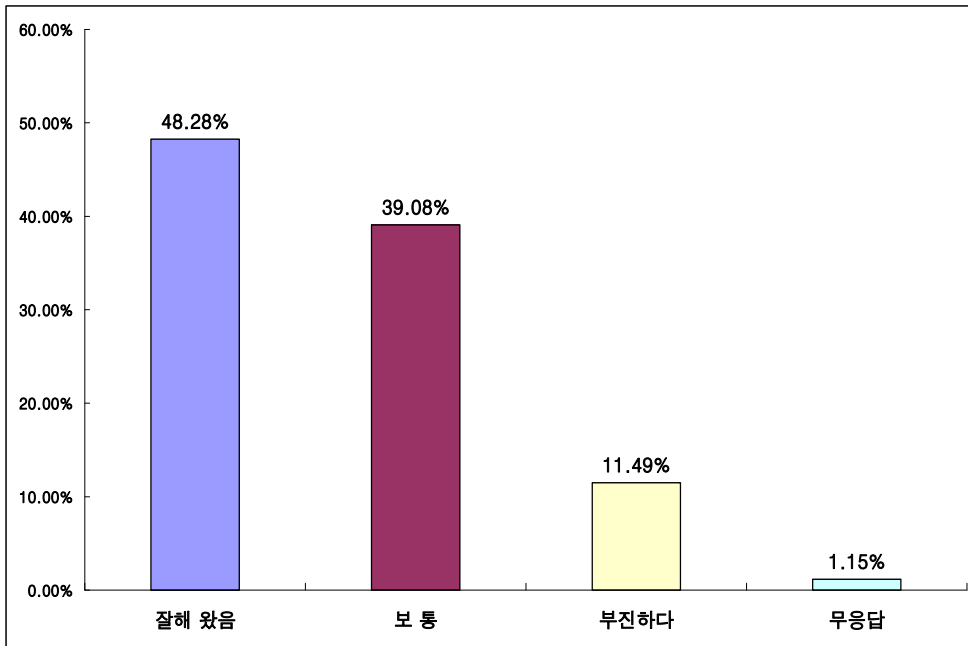
구 분	정부가 시설 지원을 하여 IT기술을 접목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입해야 한다.	설치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	업체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48	23	12	4	87
비 율	55.17	26.44	13.79	4.60	100



현재 자신이 속해 있는 브랜드경영체에서 이력추적 시스템을 제대로 시행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49.28%가 잘해 왔다, 39.08%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하여 비교적 원만히 운영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22>.

<표 4-22> 이력추적 시스템 시행 만족도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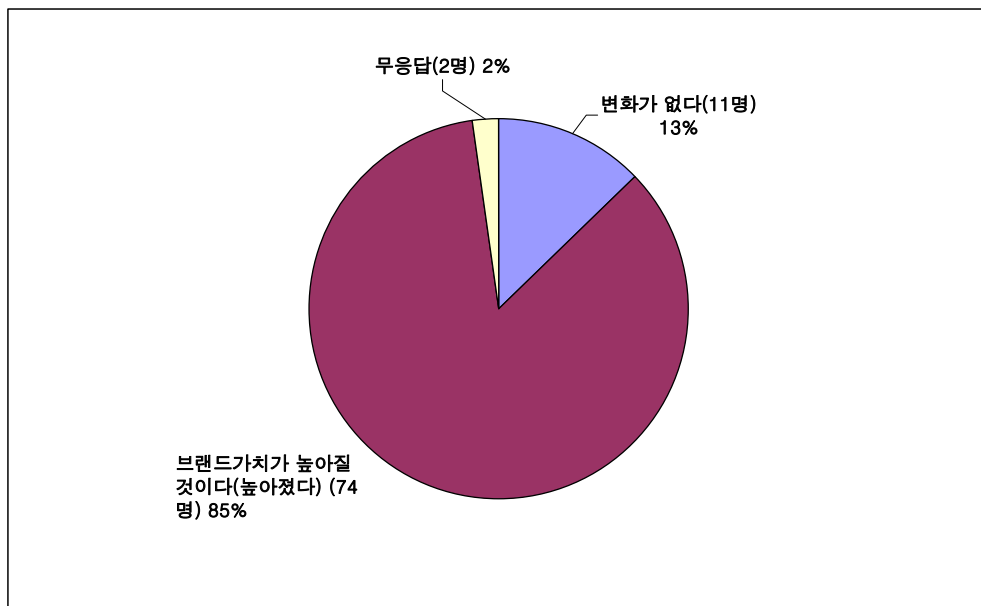
구 분	잘해 왔음	보 통	부진하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42	34	10	1	87
비 율	48.28	39.08	11.49	1.15	100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후 소속 브랜드경영체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변화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85.06%가 브랜드가치가 높아졌다고 대답하여 이 제도의 도입이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부여한 것은 물론, 브랜드경영체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주고 이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23>.

<표 4-23> 이력추적 시스템 도입후 변화 여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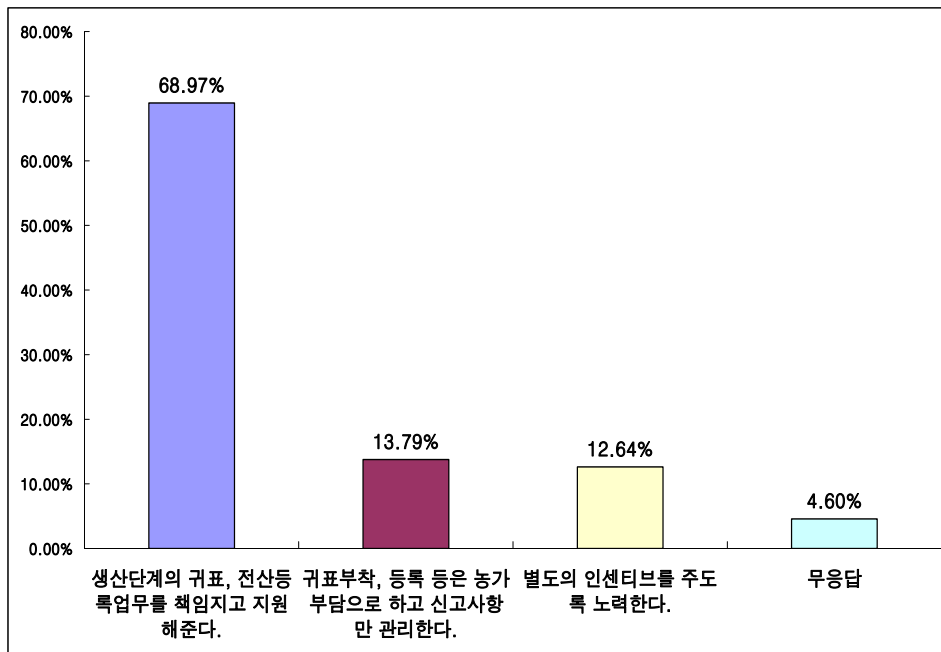
구 분	변화가 없다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높아졌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11	74	2	87
비 율	12.64	85.06	2.30	100



향후 이력추적 시스템 추진과 관련하여 회원농가의 협조를 위해 소속 브랜드경영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68.97%가 생산단계의 귀표, 전산등록 업무를 책임지고 해주어야 한다고 대답하여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약간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표 4-24>.

<표 4-24> 브랜드경영체의 지원 사항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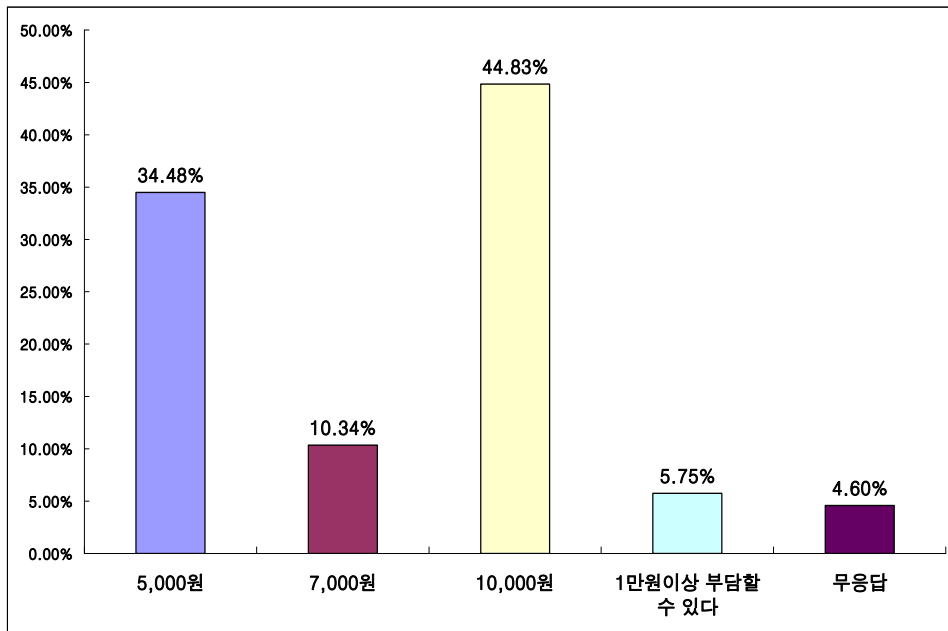
구 분	생산단계의 귀표, 전산등록업무를 책임지고 지원해준다.	귀표부착, 등록 등은 농가부담으로 하고 신고사항만 관리한다.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한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60	12	11	4	87
비 율	68.97	13.79	12.64	4.60	100



현재 이력추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는 브랜드 경영체의 경우 이 제도로 인하여 추가 비용 발생이 약간은 경영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이들 브랜드경영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두당 평균 얼마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44.83%가 10,000원, 34.48%가 5,000원으로 대답하여 대개 5,000~10,000원선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표 4-25>.

<표 4-25> 정부의 지원 희망 금액(두당) (단위 : 명, %)

구 분	5,000원	7,000원	10,000원	1만원이상 부담할 수 있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30	9	39	5	4	87
비 율	34.48	10.34	44.83	5.75	4.6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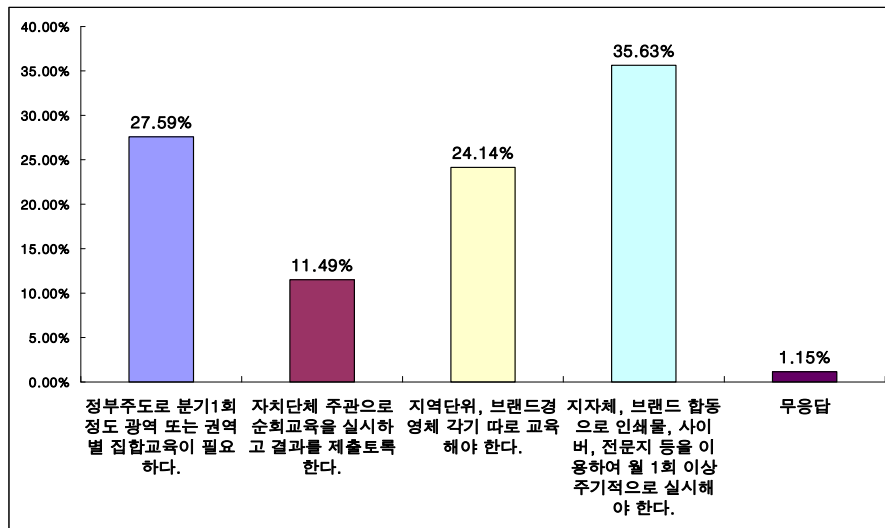


이력추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소비자에게는 이 제도의 장점에 대하여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 브랜드경영체 차원에서 월 1회이상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4-26>.

<표 4-26> 농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 (단위 : 명, %)

구 분	정부주도로 분기1회 정도 광역 또는 권역별 집합교육이 필요하다.	자치단체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 각기 따로 교육해야 한다.
응답자 수	24	10	21
비 율	27.59	11.49	2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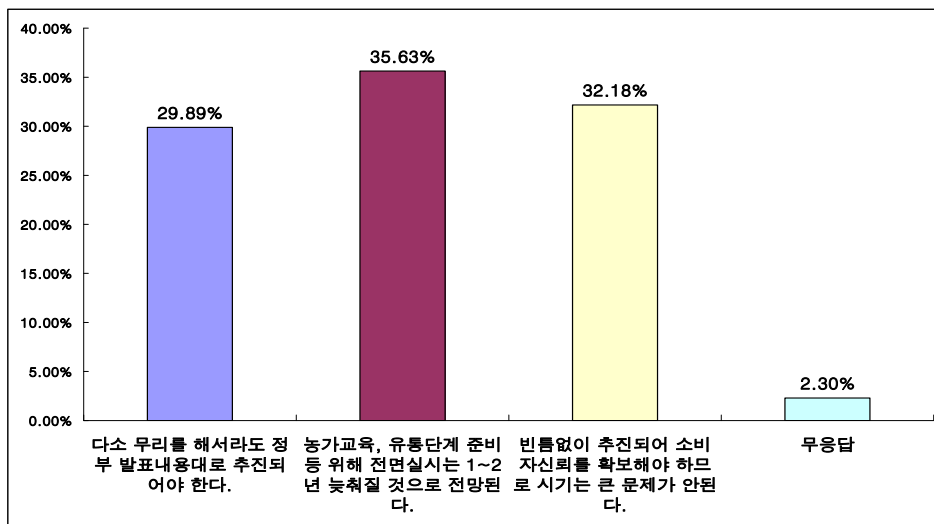
구 분	지자체, 브랜드 합동으로 인쇄물, 사이버, 전문지 등을 이용하여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31	1	87
비 율	35.63	1.15	100



정부는 현재 시범 도입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을 2008년에는 전 두수에 걸쳐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실시 시기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35.63%는 농가교육, 유통단계 준비 등을 위해 1~2년 늦추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한 반면, 29.89%는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대답하였고, 32.18%는 빈틈없이 추진되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시기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대답하고 있어 시행경험이 있는 관계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면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표 4-27> 이력추적 시스템의 전면 도입 (단위 : 명, %)

구 분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정부 발표내용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가교육, 유통단계 준비 등을 위해 전면실시는 1~2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빈틈없이 추진되어 소비자신뢰를 확보해야 하므로 시기는 큰 문제가 안된다.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26	31	28	2	87
비 율	29.89	35.63	32.18	2.3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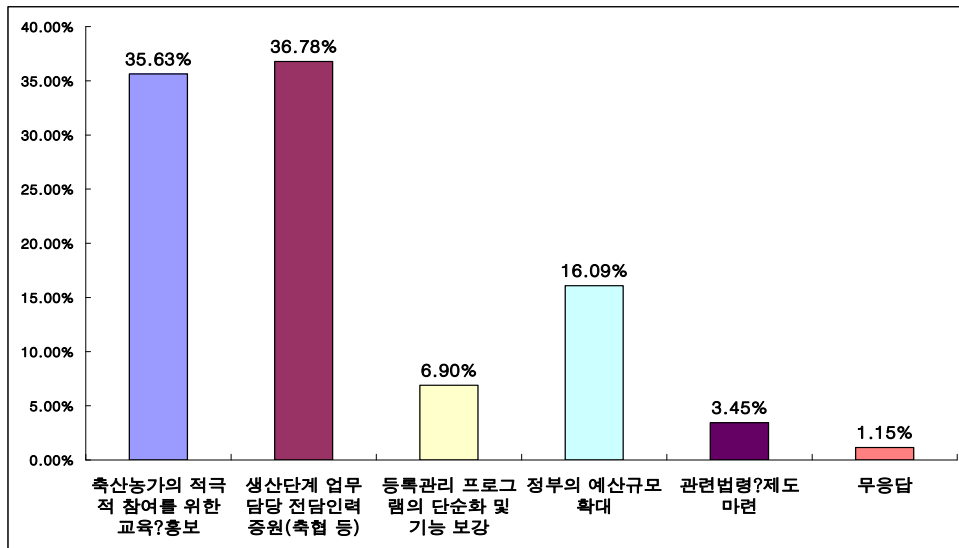


브랜드경영체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36.78%가 생산단계 업무 담당 전담인력 증원을 꼽았고, 35.63%가 축산농가의 적극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를 꼽았다. 향후 생산단계 전산등록, 귀표부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반드시 일정수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홍보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표 4-28>.

<표 4-28>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 사항 (단위 : 명, %)

구 분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생산단계 업무 담당 전담인력 증원(축협 등)	등록관리 프로그램의 단순화 및 기능 보강
응답자 수	31	32	6
비 율	35.63	36.78	6.90

구 분	정부의 예산규모 확대	관련법령·제도 마련	무응답	합계
응답자 수	14	3	1	87
비 율	16.09	3.45	1.15	100



한편 '06.5월중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에서 운영중인 「소비자패널」을 대상으로 축산물소비와 관련한 의향조사(약 370여명이 응답)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났다<조사표 2>.

첫째, 축산물을 구입할 때 비중을 두는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산인지 수입산 인지를 먼저 보는 이들이 63.7%, 그 다음이 안전성 18.3%, 가격 11.7%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 : 667	빈 도	%
브랜드	42	6.3
가 격	78	11.7
국산 또는 수입산	25	63.7
안전성	122	18.3

둘째, 가정에서 소비를 위해 쇠고기·돼지고기를 한달 평균 구입하는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3~4회가 48.4%, 5~6회가 22.6%로 나타났으며 7회이상 구입하는 횟수도 14%로 나타났으며 1~2회 구입은 15.0%로 나타나 대부분(71%)의 가게에서는 월 3~6회 수준 육류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 665	빈 도	%
1~2회	100	15.0
3~4회	322	48.4
5~6회	155	22.6
7회이상	93	14.0

셋째,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에 59.9%가 들은 적이 있다고 했으나 39.7%가 모른다고 답하고 있어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 : 665	빈 도	%
모른다	264	39.7
들은 적 있다	365	59.9
잘 알고 있다	35	5.3
관심 없다	1	0.2

넷째, 이력추적이 가능한 육류가 타 육류에 비해 10% 정도 비쌀 경우 구입의향을 묻는 질문에 26.9%가 100%, 24.3%가 70%, 39.89%가 50% 정도의 구매의사를 나타냈으며 구입 포기 의사를 나타낸 응답자는 8.9%에 불과하여 제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소비자 입장에서 이력추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 : 666	빈 도	%
100%	179	26.9
70%	162	24.3
50%	266	39.9
구입 포기	59	8.9

다섯째, 이력추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부담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국가부담이 54.6%, 생산자 부담이 23.7%로 나타나 전체 중 80% 정도가 국가와 생산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향후 정책추진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 : 663	빈 도	%
소비자	51	7.7
생산자	153	23.1
국 가	362	54.6
기 타	97	14.6

'04.12월 도입된 이후 '06.8월 현재까지 약 2년간의 시범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중간평가 성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를 전면 시행에 곧바로 도입될 수는 없겠지만 1~2년 정도의 남은 시범사업 기간 중 본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장의 의견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검증되어 일선의 선진축산 관계관들의 귀한 의견이 정책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완벽한 제도추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 제 5 장 결 론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은 일본, EU 및 미국 등 광우병(BSE) 발생국가를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는 바, 2008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현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가 시범 도입되고 있는 20개 브랜드경영체 담당자와 3개지역 관계관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방안과 함께 시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귀표장착은 기본적인면서도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이 작업은 대개 브랜드경영체(또는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표 장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브랜드경영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향후 생산 단계에 필요한 소요비용(귀표구입, 장착, 전산등록 등)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해서는 소 이동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급과 패스포트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현재 이력추적 시스템이 시범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농가나 경영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브랜드경영체 내부의 전담인력 확보의 어려움이라든가, 농가의 소극적인 참여 및 인센티브 기대 심리,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브랜드경영체가 느끼는 부담 등의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초기에 있는 이 제도는 브랜드경영체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전반적으로는 순조롭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 2절 제도도입 및 이행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동 시스템 도입시 전제조건은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도록 효과성을 보완해야 하며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적 검증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관련 사업과의 연계성이 확보하는 등 효율성이 있어야 하며 질병발생, 수입증가, 양축농가 역할증대 및 IT산업의 발달 등의 여건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동 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우선 생산단계에서의 귀표장착 및 신고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는 귀표는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여 사전에 농가에 배포토록 하고 농가 책임하에 귀표를 장착, 개체식별번호를 신고, 정리



하도록 하며 출생·이동·폐사, 수입·수출·도축과정을 FAX, 전화,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 받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도축검사증명서」와 「등급판정확인서」에 개체번호 기재란을 신설하여 동일성 여부를 관리해 나가야 하며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식육판매업소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토록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는 개체식별번호 또는 코드번호를 포장지, 용기 등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고 수기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축, 가공·판매업자로 하여금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중앙정부는 DB모니터링, 신고상황 총괄, DNA검사감독 등 실시사항 총괄하는 대신 지방정부는 귀표관리, 이표사항 신고 및 장부비치 등 대행기관 지정·감독 기능을 부여하고 전산DB는 중앙단위에 통합관리, 수정권한 일부를 부여하면 될 것이다.

귀표의 임의변경·탈락 등을 대비하여 생산단계에 DNA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축에서의 DNA 샘플채취방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방안이 강구해야할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방법을 보면 바이오피 태그, 소형침으로 혈액, 꼬리털, 타액 또는 세포, 비경부위 조직채취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DNA마크를 표준화해야 한다. 한편 DNA 검사기관은 도지사 책임 하에 도별로 시설장비를 갖추고 능력이 있는 대학 또는 연구소를 검사기관으로 지정 활용하고, 결과는 전국단위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 검사제도는 전 두수 시행시 소요비용이 막대하므로 일정기간 시범추진 후 활용방안, 정확도, 국제적 인정 등 장·단점을 검토하여 확대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안

본 연구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범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동 제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 모두가 참여하게 될 예정인바 현 단계에서 완벽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개선·보완해야 하고 연구해 나가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가등록제를 보완해야 한다. 현재 축산법에 근거, 소 사육시설 300㎡이상에 한해 등록되어 있는데, 이력추적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농장위치가 중요하므로 모든 주체의 등록이 필요하다. 또한 수집상, 반출상, 운송업자, 수정사, 사료업체 등에 대해 가축시장, 도축장 등에서 활용 중에 있는 기존의 등록번호를 사용가능토록 보완해야 한다.

둘째, 롯트(LOT) 번호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도 부분적으로 LOT 번호를 허용하고 있는데, 수요 급증시 가공 및 판매단계에서 편리한 점은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일본은 50두 단위로 LOT가 구성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등급제가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등급 범위내 10두 정도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경영체 등이 희망할 경우에는 개체식별번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해 주어야 한다.

셋째, 이동증명(passport)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농가의 협조는 매우 미흡하다. 가축시장 또는 문전거래시 신고누락 등 생산단계 이동(전입·전출·폐사) 신고를 제대로 해야 이력추적이 가능한데 신고체계가 복잡하고, 대행기관의 전담인력이 부족하며, 주로 새벽에 출하하고 있고 도축 단계에서도 시간차가 발생하다 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이동 목적을 위해 passport제도를 시행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종돈업 혈통서」나 「부르세라 검사증명서」 등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재내용을 단순화하여 전출입시 쌍방간 신고토록 조치하여, 도축장에서 제시·확인할 수 있는 「이동증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산물 원산지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제도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시·도지사, 수과원과 병행하여 단속 활동을 벌여야 한다. 단속결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반시 1차 권고, 2차 시정명령, 3차 벌칙부과 등 단계적 페널티 부과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섯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설면적 300㎡ 이상의 쇠고기 구이용 식당에 한해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된다. 동 제도는 2년간 거래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미표시 허위표시에 대하여는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과 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도록 현재 하위법령을 정비 중에 있으나 대상품목, 적용식당면적의 점진적 확대도 필요하다.

여섯째,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이력추적 시스템, 축산업등록제 등에 의해 수집되는 농가등록, 개체관리 내용 등 농가의 경제활동정보가 기록되면 조세 등 타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염려를 불식시켜 주어야 한다.

일곱째, 법제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이력추적제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향후 의무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제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누구나 내용을 알기 쉽도록 「쇠고기의 이력추적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으로 정하고 우리와 여건이 흡사한 일본법 체계를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각각에 대한 면밀한 조사연구 여부와 실증시험과 함께 제도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합의 등이 사업의 성태를 좌우하게 될 것이 명확하다.

#### 제 4 절 한우산업육성과 축산물유통구조의 업그레이드

‘05년 농림업 생산액 36조 2729억원 기준 상위 5위 품목 중 축산물이 4개를 차지하고 있고 한우의 경우 3조 1,479억원으로 3위에 올라 있는 등 한우산업은 우리 농업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걸맞게 한우산업보호·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산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06년 기준 한해 2천억원 수준 지원되고 있다<표 5-1>.

<표 5-1> ‘06년 기준 한우관련 정책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06년 예산	주 요 내 용
합 계	백만원 197,159	
○ 송아지생산안정(기금)	6,678	○ 송아지평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보전
○ 한우개량농가 지원	17,693	○ 농가지원 6,035원, 정액공급 11,658 등
○ 가축질병근절대책	25,855	○ 도축검사, 방역홍보, 채혈 기자재, 포상금 등
○ 한우 자조금	4,000	○ 50%
○ 품질고급화 장려금	8,733	○ 수소 거세우 1등급 생산 농가
○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6,900	○ 초지·기반시설, 생산단계 등 (‘05년의 경우 275억원 지원)
○ 브루셀라 보상(농특)	127,300	○ 살처분 보상금(‘05년 980, ‘06추경 973)

※ 지자체의 클러스터, 신활력, 한우브랜드 지원 등 추진사업비 제외 기준

※ 자료 : 농림부 축산국

한우산업의 보호와 축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쇠고기이력추적 시스템이 한치의 착오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모든 한우에 대해 개체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경우 신고, 기록관리 등에 대한 농가의 경영마인드 제고는 물론 경영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며 철저한 준법정신이 함양 될 것이고 DNA검사 등 연관산업의 발달도 기대되고 산·학·관·연의 클러스터 협력체계도 내실화되어 타 산업으로의 파급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이력추적제 정착은 축산물유통을 한 단계 선진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이지만 이외에도 축산물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46천여 개의 식육판매점을 깨끗하고 쉼터공간이 마련된 정육점으로 전환해 나가야 하며, 브랜드 냉장육 중심으로 신속히 유통되어 소비될 수 있는 물류체계를 마련하고 1차 단순가공식품으로 조리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전 부위 소비촉진방안을 꾸준히 시행해야 할 것이며 도축 후 이동·가공·판매단계에도 「품질」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적인 육류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의 둔갑판매근절을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맛있게 먹는 조리방법을 개발 보급하는 한편 학교, 군인 등 후계 소비계층 확보를 위한 신선육 공급체계를 확보해야 하며, 판매단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식육에 대한 올바르고 전문적인 교육추진방안은 물론 유통업계에서의 마케팅, 경영의식함양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마련되어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우산업이 육성되고 축산물의 유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며, 소비자들이 다시 찾아와서 즐겁게 구매하는 시장이 서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개방화 진전에 따라 국가간 물류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내 육류 유통시장에서 수입육의 역할과 가치도 계속 증가되고 있다. 수입물량이 증가한 만큼 거래는 투명하고, 가격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신뢰성을 갖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구조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수입육 업체 상호간 정보 교환과 수입업체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하여 부도덕한 수출업체의 사례를 국내 수입업체에 알려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업체간 적정 수입과 공동 구매방법 등을 협의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입으로 구매가격을 최저화 함으로서 구매자로서의 권위와 파워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국내 수입육의 유통가격, 재고량 및 해외 육류시장 현황 등에 관한 정보 수집과 관련업체에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요 수출국가의 생산 및 가격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하고, 지육가격 및 부분육 생산현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소비처에 전달하기 위해 육가공업체 공동판매장(또는 공동 판매 사이트)을 개설하여 대량소비처에 정보전달토록 하며, 생산자 단체가 도축 및 육가공업체 참여함으로써 품질향상과 가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소규모 영세 육가공업체를 통합하여 식육

센터적인 공동 작업장을 설립함으로써 참여업체는 OEM방식으로 식육센터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효율 증진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축산물 유통시장구조의 변화와 한우산업의 육성은 정부는 물론 관련 관련종사자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해 나가면 그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방향제시와 선행투자, 생산 농업인은 물론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아카데미, 범사회적인 관심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축산업의 유통구조 발전이 가속화되길 기대해 본다.



## 참 고 문 헌

- 농림부 축산국 업무편람, 2005, 2006
- \_\_\_\_\_ 농림업주요통계, 각 년도
- \_\_\_\_\_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요령, 2005
- \_\_\_\_\_ 축산물 작업장 현황, 2005
- \_\_\_\_\_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해외사례 조사단 work shop, 2005
- 농림부, 축산물등급판정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요령」, · 농협중앙회 2004. 10
- \_\_\_\_\_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현황 및 사업실시요령」, 2005. 11. 14
- 농 촌 진 흥 청 농축산물의 이력정보체계와 외국사례, 2003
- \_\_\_\_\_ 식품안전시스템의 이해, 2004
- 해양수산부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2004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축통계, 2005, 2006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가공품 생산실적 현황, 2004
-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2004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물가격 및 수급자료, 각 년도
- \_\_\_\_\_ 「농협조사월보」, 각년도
-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식육편람, 2006
- \_\_\_\_\_ 가축유통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06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통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
- \_\_\_\_\_ 일본의 쇠고기이력추적 관련자료, 2006

_____	축산물 생산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방안 연구, 2005
_____	쇠고기이력추적제 전면실시를 위한 방안, 2006
_____	식품수급표, 2005
가금수급안정위원회	양계산물의 유통 및 소비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2004
식품저널	식품유통연감, 2002
축산물등급판정소	쇠고기이력추적제 운영자 지침서, 2005
환경대학교	국가 개체인식 시스템(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al national animal identification system), 2006
경상대학교	한우육의 차별화를 위한 생산정보 연계 모형개발, 2003
일본중앙축산회	식육편람, 평성 17년
한국소비자연맹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정책만족도조사, 2006
농수축산신문	2005 한국축산연감」
이 병 서	농축산물 이력추적제의 주요조건과 과제, 우수농축물의 합리적 생산이력 관리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2004
이 병 오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전략, 농업경영정책연구 제 31권 제4호, 한국축산경영학회지, 2004
최 정 숙	농산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위험정보교환 이론과 실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4
권오욱 · 김성웅	“쇠고기 브랜드육에 대한 소비자 반응과 브랜드화 정착방안”, 「농업경영·정책연구」, 32(1), 2005

김 기 현 「도축장 운영실태와 경영효율성 분석」,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2

김 영 외 “CVM을 이용한 안동민족축제의 가치평가”, 「농업경영·정책연구」, 31(3), 2004. 9

김 환 규 「음식점에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김 종 대 외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 의한 지불의사액(WTP)의 추정”, 「산업과 경영」, 15(1), 2002. 8

박지호·박환용 “조건부가치추정법(CVM)을 이용한 신도시 중앙공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국토계획」, 39(6), 2004. 11

송주호 외 「미국 BSE 발생 이후 국내 쇠고기 소비변화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이영성 외 “선택모형을 이용한 생태복원의 환경가치추정에 관한 연구 - 청계천복원사업을 사례로”, 「국토계획」, 39(3), 2004. 6

이종문 “쇠고기 생산이력시스템 - 우리 축산물 안전한가?”, 「식품과학과 산업」, 축산연구소, 2004. 3

정찬길 외 「가축질병으로 인한 양돈·양계산업의 경제적 손실 분석」, 건국대학교, 2001

정민국 외 「쇠고기 유통과 소비행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 12.

한성일 외 「쇠고기 소비행태 및 소비자 의식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4. 9.

허 덕 외 「축산물 생산 유통의 Traceability System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5.

\_\_\_\_\_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2.

## Summary

Due to growing animal diseases around the globe, food safety is becoming a major concern. The importance of hygienic safety is highly issued as the house income increases. I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all countries to secure the safe distribution of livestock products from farms to home tables.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diverse policies, also focuses its effort to distribute safe meat, mostly with brands, in the market. Among all others, 「The beef traceability System 」 is to assure consumers of the safety of meat by a prompt identification system of tracing the routine if any safety related issue rises, and enhancing the clearness of distribution system by guaranteeing fair trades. This system enables us to record and manage all the information in every step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 The beef traceability System is expected to greatly improve the distribution system of livestock products.

This system has been practiced in countries with BSE problems such as Japan and EU. Korea has implemented a pilot project in December 2004 and fully introduced the system in 2008. In this study, the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complimenting of the system before the full implementation, based on my research on the status of the pilot project, are summarized with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he distribution status of cattle were studied through the survey of people who were involved in a pilot project implementation.

The government needs to clarify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troduction to a full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The

system must be efficient, and the goal must be achievable through this system. An efficient inspection system should be formed with the minimum cost and those who would hold the accountability must be clearly defined.

To comple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① the premise registration system of livestock industries must be complemented and utilized ② LOT numbers and individual identification numbers should be well used ③ the passport should be introduced ④ monitoring must be institutionalized ⑤ the implementa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Marking System in restaurants should be established ⑥ the effort should be extended in the management of the accumulated data, and ⑦ legislation should be pursued as soon as possible as was in Japan.

To improve livestock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along with the complete implementation of this system, meat stores should change their environment into cleaner and better appearance, and the supply channel of chilled brand meat should be promoted. At the same time, the consumption for all parts of beef should also be promoted by developing and distributing simple processing skills. For students and military personnels who are living in a large group, fresh meat should be supplied; For employees working in meat selling stores, professional knowledge should be provided through training and education; and clearness of distribution system in trade of meat import and related countermeasures should be pursued all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clear presentation of the right direction, innovation as well as knowledge of people working in related industries, interests and close observation of the public will develop Korea's livestock products distribution system into the more advanced one to meet the markets of 21st century.

<조사표 1>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표

2006. 8

본 설문조사는 2008년부터 전면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이 체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조사결과는 목적에 국한하여 통계적으로만 처리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1. 귀표장착은 누가 합니까  
① 농가에서 직접 ②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③ 한우조합 등 기타( )
2. 현재 귀표장착(귀표구입 및 장착)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① 농가 ②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③ 행정기관 ④ 기타( )
3. 이력제 발전을 위해 귀표장착은 누구 책임하에 이뤄져야 할까요  
① 농가 ②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③ 기타( )
4. 장기적으로 생산단계(귀표구입, 장착, 전산등록 등)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① 농가 ② 정부 ③ 브랜드경영체 또는 축협 ④ 기타( )

5. '06.3월부터 신형으로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2조(바코드형과 버튼형)식 귀표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
  - ② 1개만 조금 크게 하고, 보조형(단추형)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 ③ 기타( )
6. 소의 귀표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전두수 실시예정인 이력제귀표로 통합 관리해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이 사업별도 각각 장착하되, 등록사항만 관리해도 된다
  - ③ 전국통일 국가귀표와 자체관리용 귀표를 병행해도 무방하다.
7. 정확한 기록관리를 위한 방안은
- ① 농가별 전담직원 지정 활용    ② 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 ③ 전화, FAX 등 전담창구 운영    ④ 기타( )
8. 품종, 성별, 출생, 거세일시, 출생지 및 사육지 등 생산·사육관련 항목의 전산등록이 필요한데 농가에서 어느 정도 신고, 기록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① 100%    ② 80~100    ③ 60~80    ④ 40%이하
9. 현행 시범사업에서 이동·출하 등 이동상황에 대한 농가의 신고는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① 100%    ② 80~100    ③ 60~80    ④ 40%이하
10. 이동상황관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 ① 농가별 전담직원 지정 활용    ② 신고시 인센티브 부여
  - ③ 전화, FAX 등 전담창구 운영    ④ 기타( )

11. 진출입, 출하 등 이동관리를 쉽게하기 위해 이동증명서(패스포드) 제도 도입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① 시범사업 기간중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 ② 도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12. 이력추적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력제 실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방역 등 위생 안전성 ②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방지
  - ③ 가축개량 ④ 안전식육공급
13. 사육~판매까지 이력추적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에 대한 견해는
- ① 생산, 도축단계까지만 의무 시행하고, 유통단계는 자율추진이 바람직
  - ② 현행대로 유지하여 의무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14. 판매장에서 이력정보 제공방법은
- ① 현행과 같이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신뢰를 높혀 나가야 한다
  - ② 홍보를 통해 휴대폰 이용 가능한 점을 부각하고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 ③ 노트북, 이력알림판 등 간편한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
15. 귀표의 인위적 교체방지 등을 위해 생산단계 DNA 검사에 대한 견해는
- ① 귀표장착시 시료채취하여 검사해 둔다
  - ② 현행과 같이 도축장에서 시료채취하여 가공장·판매장에서 채취한 시료와 동일성검사만 해도 충분하다
16. 현재 도축두수의 3% 수준에 대해 DNA 동일성검사를 실시하여 개체를 확인하고 있는데
- ① 일본도 1%정도 동일성검사 하므로 현행과 같이 해도 충분하다
  - ② 소비자신뢰를 위해 5% 수준까지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
  - ③ 생산시 DNA 시료채취 등 전두수에 대해 DNA 검사를 해야 한다



17. 현재 가공장 월1회, 판매장 월2회 샘플을 수거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① 적정하다
  - ② 확대해야 한다
  - ③ 폐지해도 상관없다
18. RF-ID를 이용한 개체관리시스템 도입 주장과 관련하여
- ① 정부가 시설지원을 하여 IT기술을 접목하여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도입해야 한다
  - ② 설치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
  - ③ 업계자율의사에 맡겨야 한다
19. 귀하가 소속해 있는 브랜드경영체의 현재까지의 이력추적 시범사업 참여실적을 평가한다면
- ① 잘해 왔음    ② 보통    ③ 부진하다
20. 쇠고기 이력추적제도 시범사업 참여후 소속 브랜드 경영체에 일어난 변화는
- ① 변화가 없다    ② 브랜드가치가 높아질 것이다(높아졌다)
21. 이력추적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회원농가의 협조를 위해 소속 경영체에서는
- ① 생산단계의 귀표, 전산등록업무를 책임지고 지원해준다
  - ② 귀표부착, 등록 등은 농가부담으로 하고 신고사항만 관리한다
  - ③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노력한다
22. 소속 경영체에서는 이력관리를 위해 별도비용을 투입하고 있는데 경영수지와 관련하여 두당 평균 얼마정도 지원할 때가 적정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 ① 5,000원    ② 7,000원    ③ 10,000원    ④ 1만원이상 부담할 수 있다

23.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한 농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 ① 정부주도로 분기1회 정도 광역 또는 권역별 집합교육이 필요하다
  - ② 자치단체 주관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 ③ 지역단위, 브랜드경영체 각기 따로 교육해야 한다
  - ④ 지자체, 브랜드 합동으로 인쇄물, 사이버, 전문지 등을 이용하여 월 1회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4. '07년도에는 도 1-2개소, 도별 시·군 3-4개 확대한 후 '08년 전면실시 목표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정부 발표내용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② 농가교육, 유통단계 준비 등 위해 전면실시는 1-2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 ③ 빈틈없이 추진되어 소비자신뢰를 확보해야 하므로 시기는 큰 문제가 안된다
25.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 ① 축산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교육·홍보
  - ② 생산단계 업무 담당 전담인력 증원(축협 등)
  - ③ 등록관리 프로그램의 단순화 및 기능 보강
  - ④ 정부의 예산규모 확대
  - ⑤ 관련법령·제도 마련

**답변자 인적사항**

1. 귀하의 직업 ① 브랜드경영체 임원 ② 브랜드경영체 직원  
 ③ 공무원 ④ 축산인
2. 귀하의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3. 브랜드사업에 참여한 경력 ① 5년미만 ② 5-10년 ③ 10년이상

<조사표 2>

## 소비자 의향 설문조사표

1. 축산물을 구입할 경우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는 ?  
A : 브랜드 B : 가격 C : 국산 또는 수입산 D : 안전성
2. 한달 기준으로 가정에 소, 돼지고기는 몇 번 구입하십니까?  
A : 1-2회 B : 3-4회 C : 5-6회 D : 7회 이상
3. 안전성 확보를 위해 '04.10월부터 시범 추진중인 「최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관하여  
A : 모른다 B : 들은적 있다 C : 잘 알고 있다 D : 관심없음
4. 꼭 필요시 이력추적시스템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고기가 일반 정육보다 10% 정도 비쌀 경우 구입할 의사는?  
A : 100% B : 70% C : 50% D : 구매 포기
5. 생산에서 소비까지 단계별 이력추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A : 소비자 부담 B : 생산자 부담 C : 국가 부담 D : 기타
6. 가정내 요리를 목적으로 육류를 주로 구입하는 곳은 ?  
A : 마트 등 대형매장 B : 동네슈퍼 C : 식육소매점 D : 식당 또는 시골 산지

- KREI 농업관측센터에서 운영중인 「소비자패널」 대상으로 '06.5월 조사
- 전국 일원에 거주하는 가정주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 670명 응답
  - 월 소득 200~300만원이 21.4%, 300~350만원이 58.4%  
30~40대가 82.2%, 서울 거주자가 절반


黃仁植의

經營學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審 查 委 員

委員長 崔 乘 喆 

委 員 金 敏 慶 

委 員 韓 成 一 

2006年 12月 日

建國大學校 農畜大學院